

# 북한사회 변화에 따른 지배이데올로기 변화

## : 전통적 지배이데올로기의 영향력 약화와 새로운 지배이데올로기 등장

김진환

### — 목 차 —

- |                                 |                         |
|---------------------------------|-------------------------|
| I. 머리말                          | IV. 새로운 지배이데올로기의 내용과 특징 |
| II. 북한사회의 전통적 지배이데올로기           | V. 맺음말                  |
| III. 체제위기 속 전통적 지배이데올로기의 영향력 약화 |                         |

[국문요약] 북한 당국은 1945년 해방 이래 2019년 현재까지 북한사회 안팎 변화에 대응하는 지배이데올로기를 개발하고, 이를 북한 인민에게 침투시키는 방식으로 통치 안정화를 도모해 왔다.

예를 들어 북한 당국은 해방 이후 북한사회 안에 존재하던 자본주의적 요소를 없애고 농업·상공업을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 과정에서 ‘집단주의’를 정식화하고 이를 인민에게 내면화시키기 위해 주력했다. 또한 북한 당국은 전후 복구, 1950년대~1960년대 소련·중국과의 갈등 등을 거치면서 ‘주체사상’을 정립했고, 1960년대 중반 경제침체에는 집단주의·주체사상 교양 강화로 대응했다.

지배이데올로기의 개발과 전파를 통해 통치 안정화를 도모하는 북한 당국의 모습은 1990년대 체제위기 발생 이후에도 변함이 없지만, 북한 당국이 인민에게 내면화시키려는 지배이데올로

기의 내용은 좀 더 다양해지고 있다.

먼저 김정일 통치 시기 북한 당국은 체제위기 극복을 위해 실행한 선군정치의 정당성과 효과성을 인민에게 각인시키기 위해 ‘선군사상’을 정식화·체계화해나갔다. 다음으로 김정은 통치 시기 북한 당국은 ‘김정일애국주의’ 정식화, ‘인민대중제일주의’, ‘우리 국가제일주의’ 등을 통해 인민에 대한 신뢰, 경의, 애정을 부쩍 자주 드러내고 있다. 최근 북한 당국 지배이데올로기 행보의 배경에는 인민이 의식주의 많은 부분을 시장에서 스스로 해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민의 정치사상적 지지를 받으면 고압적이거나 계몽적인 태도보다는 일종의 ‘자세 낮추기’가 효과적이라는 판단이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 주제어:** 지배이데올로기, 주체사상, 집단주의, 선군사상, 인민대중제일주의, 우리 국가제일주의

## I. 머리말

어느 사회에서나 ‘강압’만으로 이루어지는 지배는 없다. 한 사회의 지배집단은 ‘강압’ 뿐 아니라 피지배집단의 자발적 ‘동의’를 이끌어내야만 비로소 자신이 주도적으로 만들어 온 정치·경제구조를 안정적으로 유지시키고, 원하는 방향으로 바꾸어나갈 수도 있다. 따라서 지배집단은 강압에 의한 지배를 위해 상세한 법규와 사법기관을 갖추듯이, 동의에 의한 지배를 위해 설득력 있는 지배이데올로기와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를 구축한다. 지배집단은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를 동원해<sup>1)</sup> 피지배집단과의 ‘이데올로기 동일화’를 추구하며 이러한 목적이 달성될 경우 그 사회의 정치적 안정성은 높아진다.<sup>2)</sup>

북한사회의 지배집단인 조선노동당 역시 지배이데올로기를 만들고 이를 인민대중에게 내면화시키기 위해 공을 들여왔다. 1945년 해방 이후부터 일찌감치 정식화한 ‘집단주의’와 1960년대 들어 본격적으로 정식화·체계화한 ‘주체사상’은 조선노동당이 인민대중에게 내면화시키려 했던 양대 지배이데올로기라고 할 수 있다. 달리 말해 집단주의와 주체사상은 북한사회에서 오랜 기간 인민대중의 생각과 행위에 영향력을 끼쳐 왔던 전통적 지배이데올로기다.

하지만, 1990년대 심각한 경제난 이후 시장화가 진전되면서 북한사회에서 전통적 지배이데올로기의 영향력 약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북한 경제가 어려움에 처하기 시작한 1980년대 후반부터 주민들은 다양한 개인 부업에 힘을 쏟기 시작했고, 개인 부업을 통해 만든 생산물을 농민시장과 암시장에 판매하는 과정에서 집단주의와 다른 ‘개인주의’에 눈을 돌리게 됐다. 특히, 1990년대 초·중반 식량과 생필품을 구하기 위한 주민 이동이 늘고 출근율은 낮아지면서 집단주의 내면화의 제도적 기반인 조직생활과 정치사상교양이 약화되고, 반면에 개인주의의 토대인 시장의 기능과 역할은 갈수록 커지면서 개인주의가 빠르게 영향력을 확대해가고 있다.

북한 당국은 이러한 전통적 지배이데올로기의 영향력 약화에 당연히 대응해야 했고, 이에 따라 새로운 지배이데올로기의 정식화·체계화에 주력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김정일은 1990년대 체제위기에 대응해 선군정치를 실시했고, 이러한 선군정치 경험을 이론화하는 과정에서 선군사상을 주도적으로 정식화·체계화했다. 김정은 역시 2012년 집권하자마자 ‘김정일애국주의’ 정식화를 시작으로 김일성-김정일주의 심화발전<sup>3)</sup>에 나섰고, 최근에는 자신의 독자적 지배이데올로기를 연이어 내놓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다.

1) 알튀세르는 국가기구를 경찰, 군대 같은 억압적 국가기구와 학교, 교회, 언론, 대중매체 같은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로 구분한다.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는 피지배계급에게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를 내면화시키는 기능을 한다. 비판사회학회, 『사회학』 (서울: 한울아카데미, 2012), p. 164.

2) 김진환, “북한 지배이데올로기의 형성과 내면화,” 강정구 외, 『시련과 발돋움의 남북현대사』 (서울: 선인, 2009), p. 394.

3) 김진환, “김정은 시대 지배이데올로기의 특징과 전망 : ‘김일성주의’에서 ‘김일성-김정일주의’로,” 『북한연구학회보』 제17권 제2호 (2013).

이처럼 북한 당국은 1990년대 체제위기 발생 이후 경제관리 개선, 핵무기 개발 같은 구체적인 대내외 정책을 실행하는 것과 더불어, 자신의 대내외적 통치행위를 안정화·정당화하기 위한 지배이데올로기 개발도 병행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북한 당국의 체제위기 대응 연구는 구체적 정책의 내용과 실행 양상을 분석하는 것에 비해, 북한 당국의 이데올로기적 대응을 파악하는 데는 소홀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공백을 채우기 위해 이 글에서는 먼저, 북한사회 전통적 지배이데올로기의 내용과 침투 양상을 정리해보고(2장), 다음으로, 북한 당국이 ‘새로운 지배이데올로기’를 개발해야 했던 대내외 상황 변화를 소개한 뒤(3장), 끝으로, 북한 당국이 체제위기 발생 이후 현재까지 개발한 새로운 지배이데올로기의 내용, 특징, 함의 등을 김정일 통치 시기와 김정은 통치 시기로 나눠 분석해 볼 것이다(4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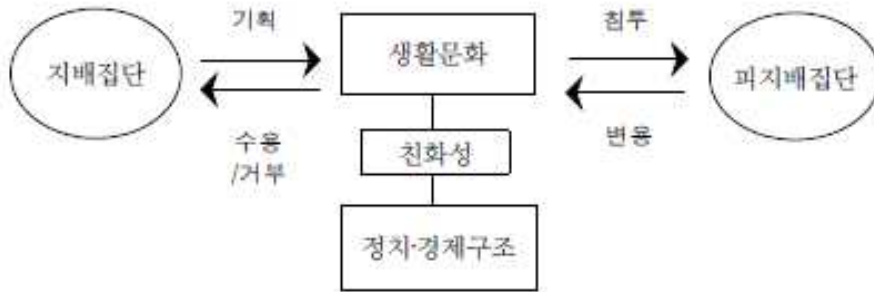
## II. 북한사회의 전통적 지배이데올로기

### 1. 조선노동당의 집단주의 생활문화 내면화 시도

한반도의 분단에는 지리적·정치적·경제적 측면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한반도는 문화적으로도 분단되어 있다. 문화적 측면에서 분단은 “분단된 각 지역의 지배집단이 주도적으로 수행해 온 사고방식과 행위양식 ‘차이’의 확대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정의는 문화란 특정한 사회나 집단의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사고방식과 행위양식의 총체라는 정의에 기반하고 있고, 문화 형성의 주도성이 지배집단에게 있다는 인식을 전제한다.

지배-피지배 관계에 관심을 기울여왔던 사회학자들은 지배집단이 자신이 선호하는 사고방식·행위양식을 어떻게 피지배집단의 사고방식·행위양식에 침투(浸透)시키는지 해명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시도는 언제나 특정한 정치·경제구조 기획과 함께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곧 사회의 지배집단은 바람직한 생활문화의 내용을 마련하는 것뿐 아니라 이를 피지배집단에게 내면화시키는데 적합한 정치·경제구조의 창출을 함께 모색한다. 피지배집단은 이에 대응해 지배집단의 문화적 규범에 동조하거나 또는 대안적 규범을 마련하는 동시에 지배집단의 정치·경제구조 기획을 현실화시키거나 어긋나게 만든다. 이러한 현실을 도식화한 것이 [그림 1]이다.

<그림 1> 생활문화와 정치·경제구조의 구성



북한사회 지배집단인 조선노동당도 체제 성립 초기부터 집단주의 사상, 집단주의 사상을 기반으로 한 집단주의적 행위 등을 인민대중의 지배적 생활문화로 정착시키려 시도했다. 먼저, 집단주의가 ‘지배’이데올로기가 될 수 있는 이유부터 알아보자. 집단주의란 개인의 개별이해보다 사회의 공통이해를 더 소중히 여기는 사상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집단주의가 지배이데올로기인 이유는 바로 ‘공통이해의 존재’를 전제하기 때문이다. 지배집단이 말하는 공통이해는 대부분 자신의 개별적 특수이해에 불과하다. 하지만 지배집단은 자신의 개별적 특수이해를 보편적인 것으로 주장하고, 피지배집단에게 공통이해를 위해 개별이해를 자제하거나 포기하라고 요구한다. “하나는 전체를 위해, 전체는 하나를 위해”를 말하지만, 하나의 우위에는 언제나 전체가 있다.<sup>4)</sup>

북한 당국은 1961년에 집단주의를 “사회적 리익에 대한 충실성, 공동 위업을 위한 투쟁에서의 연대성의 사상이며 개인의 리익을 공동의 리익에 복종시키는 생활 태도”<sup>5)</sup>로 정의했다. 집단주의자로 변모한 근로자들이 보여주는 고상한 품모 또는 기풍은 “집단의 사업을 개인의 사사로운 일보다도 앞세우고 그에 복종”, “사회적 소유를 귀중히 여기며 그를 확대 발전시키기 위하여 로력”, “네 일, 내 일 가리지 않고 오직 집단의 리익을 위하여 헌신”, “혁명적 동지 우애심과 호상원조” 등이다.<sup>6)</sup>

물론 위의 책이 나온 1960년 초반 당시 북한 주민 모두가 집단주의적 인간으로 살고 있었던 건 아니다. 다만, 당시 북한사회에 집단주의 생활문화와 친화성이 높은 정치·경제구조가 구축된 덕분에 인민에게 집단주의를 내면화시키겠다는 김일성과 조선노동당의 구상<sup>7)</sup> 실현에 유리한 조건은 갖춰져 있었다고 평가할 수

4) 김진환, “북한 지배이데올로기의 형성과 내면화,” pp. 416~417.  
 5) 강덕서, 『새 인간 형성과 천리마 작업반 운동』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1), p. 59.  
 6) 강덕서, 『새 인간 형성과 천리마 작업반 운동』, pp. 59~70.  
 7) 김일성은 1955년에 아래처럼 집단주의 내면화 목표를 공개적으로 강조했다. “전체 당단체들은 매 당원들로 하여금 로동은 가장 영예로운 것이며 인간생활의 필수조건이라는것을 똑똑히 인식하도록 하며 사회적소유를자기의 눈동자와 같이 애호하며 당과 국가와 사회의 리익을 개인의 리익보다도 더 귀중히 여기는 집단주의정신이 그들의 일상생활을 지배하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김일성, “당원들속에서 계급교양사업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1955. 4. 1),” 『김일성 저작집 9』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있다.

첫째, 북한사회에 존재하던 자본주의 정치세력은 이미 해방 직후 사회주의 정치세력에 밀려 사라졌고, 1956년 ‘8월 종파사건’ 결과 조선노동당 안에서 집단주의 침투에 유리한 정치구조가 만들어졌다. 당시 집단주의의 내면화를 강력히 추구하던 김일성 세력은 1956년 8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집단주의 교양 같은 ‘사상적 자극’과 임금 인상, 배급량 증대 같은 ‘물질적 자극’이 함께 가야 한다고 주장해왔던 소련계·연안계를 제거했고, 이에 따라 북한사회의 집단주의화를 방해할만한 세력이 존재하지 않는 정치구조가 구축된 것이다.

둘째,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개인주의, 이기주의의 경제적 토대가 약화됐다. 곧 전쟁으로 생산 기반을 상실한 자영농들은 별다른 저항 없이 조선노동당의 농업 집단화 방침을 수용했고, 비슷한 이유로 개인 상공업도 빠르게 사회주의적으로 개조됐다. 이 결과 1959년에는 단 한 명의 개인농, 개인 상공업자를 찾아볼 수 없는 경제구조([표 1]), 곧 집단주의 생활문화 정착과 고도로 친화적인 중앙집권적 계획경제구조가 구축됐다.

[표 1] 주민의 사회 그룹별 구성 (단위: %)

	1946년 말	1949년 말	1953년 12월 1일	1956년 9월 1일	1959년 12월 1일	1960년 말
총수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로동자	12.5	19.0	21.2	27.3	37.2	38.3
사무원	6.2	7.0	8.5	13.6	13.4	13.7
농업협동조합원	-	-	-	40.0	45.7	44.4
개인 농민	74.1	69.3	66.4	16.6	-	-
협동단체가입 수공업자	-	0.3	0.5	1.1	3.3	3.3
개인수공업자	1.5	0.8	0.6	0.3	-	-
기업가	0.2	0.1	0.1	-	-	-
상인	3.3	1.7	1.2	0.6	-	-
기타	2.2	1.8	1.5	0.5	0.4	0.3

※ 출처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계획위원회 중앙통계국 편, 『1946~196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 경제 발전 통계집』 (평양: 국립출판사, 1961), p. 19.

1957년~1958년 ‘천리마운동’을 통해 급속한 경제성장을 달성한 김일성은 1958년 11월에 집단주의 사상교양 전면화를 촉구했고, 이에 따라 천리마작업반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됐다. 천리마작업반운동은 1959년 3월 8일, 천리마운동의 상징인 강선제강소의 진응원 작업반이 「나는 집단을 위하여, 집단은 나를 위하여」라는 구호를 들고 발기했고,<sup>8)</sup> 농업 부문에서는 1960년 6월 강서군 청산협동농장 제1작업반이 가장 먼저 천리마작업반 칭호 쟁취운동에 궐기했다.<sup>9)</sup> 천리마작업반운

1980), p. 264

8) 서동만, 『북조선 사회주의체제 성립사 1945~1961』 (서울: 선인, 2005), p. 850.

9) 직업동맹출판사, 『천리마기수독본』 (평양: 직업동맹출판사, 1963), p. 24.

동은 1960년 8월 22일 「전국천리마작업반운동 선구자대회」 이후 군대와 학교로도 퍼져 나갔다.<sup>10)</sup>

한편, 북한경제가 일시적 침체를 겪었던 1960년대 중반 이후에는 앞에서 본 ‘대중운동’과 더불어 ‘조직생활’이 집단주의 내면화의 주요 수단으로 강화됐다. 조직생활 강화가 개인주의,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집단주의 정신을 배양하는 “가장 위력한 방도”로 새롭게 규정된 것이다.<sup>11)</sup> 특히 조선노동당은 이 시기부터 인텔리에 대한 집단주의 교양에 힘을 쏟았다. 김일성은 1967년 5월에 인텔리를 노동을 통해 개조하려던 시도를 비판적으로 평가한 뒤, 조직생활 강화를 인텔리 혁명화의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 제시했다.

이처럼 조직생활을 통한 집단주의 교양이 강화되면서 가장 주목할 변화는 근로단체의 역할이 이전에 비해 크게 높아졌다는 사실이다. 조선노동당의 정의에 따르면 근로단체는 “당과 대중을 연결시는 인전대(引傳隊)”로, 인민대중을 혁명화, 노동계급화하는 “완전한 사상교양단체”다.<sup>12)</sup> 하지만 1960년대 중반까지 조선직업총동맹(직맹), 조선농업근로자동맹(농근맹),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사로청), 조선민주여성동맹(여맹) 같은 근로단체는 제 역할을 못하고 있었다. 마침내 김일성은 1968년 10월 직맹, 농근맹, 사로청, 여맹 중앙위원회 간부들을 모아놓고 근로단체 사업현황을 혹독하게 비판하며 역할 제고를 촉구했다. 또한 김일성은 몇 년 뒤 사로청이 “령감동맹”으로 부를 수 있을 정도로 패기와 진취성이 부족하고, 이로 인해 여전히 당의 요구수준에 다다르지 못하고 있다면서, 사로청 중앙위원회 일군들은 35세 이하, 군(郡) 사로청 일군들은 32세 이하로 꾸리는 조치를 단행하기도 했다.

김정일도 후계자 등극 이후 집단주의 내면화에 주력했다. 우선 당 조직생활 강화를 위해 ‘2일 및 주 당생활총화제도’를 문학예술 부문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한 뒤 1973년 8월부터 모든 당조직으로 확대해 나갔다. 다음으로 1974년 10월에는 대중운동인 ‘70일전투’를 발기했다. 그는 이 기간 일체 회의를 하지 말고 생활총화도 10일에 한 번씩 하도록 하면서 당조직을 생산현장에 총동원했고, 김일성에 따르면 이 결과 1974년 공업생산이 전년에 비해 17.2% 증가했다고 한다. 이어서 김정일은 이미 진행 중이던 3대혁명소조운동의 지도체계를 개선하고 나아가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새롭게 발기했다. 1975년 11월 「사상도 기술도 문화도 주체의 요구대로!」라는 구호와 함께 시작된 이 운동은 “천리마작업반운동의 새로운 높은 단계로의 심화발전”으로 규정됐다. 곧 천리마작업반운동의 사상개조 목표가 사대주의 극복과 주체성 확립, 집단주의 내면화 정도였다면,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 강령에 맞게 대중들을 수령에 충실한 주

10) 이상 해방 이후 1960년대 초반까지 북한사회 정치·경제구조 변화와 조선노동당의 집단주의 생활문화 내면화 시도는 아래 글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김진환, “조선노동당의 집단주의 생활문화 정착 시도,” 『북한연구학회보』 제14권 제2호 (2010). 김진환, “천리마운동 : 건설의 신화와 재현의 정치,” 『북한연구학회보』 제20권 제2호 (2016), pp. 38~41.

11) 이태섭, 『김일성 리더십 연구』 (서울: 들녘, 2001), p. 462.

12) 당력사연구소, 『조선로동당력사』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1), pp. 416~419

체주의자, 집단주의자로 만드는 것이었다.

북한 당국은 이 밖에도 1978년부터 2차 7개년계획에 돌입하면서 그해 5~8월 ‘100일전투’를 벌였고, 1979년 6월 당 중앙위원회 5기 18차 전원회의를 계기로 철도운수부문에서 수송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5·18무사고정시견인초과운동’도 진행했다. 실로 1970년대는 ‘대중운동의 나날’이었다. 조선노동당은 학교, 근로단체, 관영언론 등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를 총동원해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하라고 인민대중에게 호소했고, ‘조직된’ 인민대중은 이 호소에 따라 열심히 일했다. 이는 당시 북한 공업이 안팎의 악조건 속에서도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었던 핵심 동력이었다. 한마디로 1970년대까지는 집단주의 생활문화라는 지배이데올로기의 영향력 덕분에 아직 ‘동의에 의한 지배’가 가능한 시절이었다.<sup>13)</sup>

## 2. 주체사상의 등장과 정식화·체계화

북한사회에서 주체사상은 크게 구분하면 세 단계를 거쳐 발전해왔다. 첫째 단계는 항일무장투쟁기에 주체사상이 싹튼 단계이고, 둘째 단계는 1960년대까지 당·국가사업의 원칙으로 자리 잡아 나가는 단계, 그리고 셋째 단계는 지배이데올로기로서 기능을 높이기 위해 김정일 주도로 정식화·체계화되는 단계다.

조선노동당은 김일성이 1930년 6월 만주 카룬에서 가진 “새 세대 청년공산주의자” 회의에서 주체사상을 세상에 선포했다고 주장한다.<sup>14)</sup> 김일성과 조선노동당에 따르면 김일성이 “혁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여 해결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책임지고 자기의 실정에 맞게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sup>15)</sup>고 결심하게 된 계기는 그가 항일무장투쟁을 시작하자마자 체험한 ‘민생단 사건’이다. 김일성은 1933년 11월 일제 간첩인 민생단 혐의를 받고 중국공산당 감옥에 투옥됐다가 겨우 처형을 면하고 풀려났는데, 이 과정에서 “자주성은 민족의 첫째 가는 생명이라는 것”과 “자주성을 고수하고 옹호하기 위해서는 민족을 이루는 모든 구성원들, 특히는 그 선각자들의 희생적인 투쟁이 필요하다는 것을 심장 깊이 절감했다”는 것이다.<sup>16)</sup>

이처럼 항일무장투쟁 시기에 싹트고 김일성과 조선인 유격대원들이 공유하고 있던 주체사상은 조선노동당과 소련공산당의 갈등이 가시화된 1950년대 중반 들어 당·국가사업의 원칙으로 자리 잡아 나갔다. 곧 이전까지 주체사상이 대국주의(大國主義)와 사대주의(事大主義)를 반대하는 관점 정도였다면, 이 시기를 거치며 사상주체, 정치자주, 경제자립, 국방자위를 추구하는 신념으로 발전한 것이다.

첫째, 김일성은 1955년 12월 당 선전선동 간부들에게 조선의 당사(黨史)로 당

13) 김진환, “북한 지배이데올로기의 형성과 내면화,” pp. 418~424.

14) 당력사연구소, 『조선로동당력사』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6), pp. 26~34.

15) 김일성, “조선혁명의 진로(1930. 6. 30),” 『김일성 저작집 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pp. 6~8.

16) 김일성, 『세기와 더불어 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p. 69.

원들을 교양할 것, 우리나라의 역사와 현실을 성실하게 연구해 통달할 것, 선진 경험을 배우더라도 항상 조선혁명에 어떻게 이용할지를 생각할 것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하며 사상사업의 주체 확립을 본격화했다.<sup>17)</sup>

둘째, 김일성세력은 1950년대 중반~1960년대 초반 사회주의 종주국 소련의 압력에 맞서며 정치적 자주, 경제적 자립노선을 정립해 나갔다. 국제주의적 단결은 각 나라의 자주성이 존중되는 가운데 자원(自願)적이고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정치적 독립과 자주성을 확고히 보장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자립이 필수적이라는 외교·경제사업의 대원칙이 이 시기에 마련된 것이다.<sup>18)</sup>

셋째, 국방사업 원칙도 정립됐다. 정전 이후 김일성은 기회 있을 때마다 군대에서 현대 수정주의와 교조주의를 반대하고 주체를 확립할 것을 강조하는 한편, 1958~1959년에는 군대 안에서 연안계, 소련계를 집중적으로 제거해 나갔다. 1954년 9월~1958년 10월 사이 중국 인민지원군이 북한에서 철수한 것도 군사 주체성을 확립하는 계기가 됐다. 특히 조선노동당은 1962년 10월 쿠바미사일 사태 때 소련이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고, 자신의 군사원조 요청에는 냉담한 반응을 보이자 1962년 12월 당 중앙위원회 4기 5차 전원회의에서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병진 방침을 제시하고 전군 간부화와 현대화, 전민 무장화와 전국 요새화를 목표로 본격적인 군사력 증강에 나섰다. 이른바 ‘자위적 군사노선’이 등장한 것이다.

마침내 김일성은 1965년 4월 14일 인도네시아 ‘알리 아르함’ 사회과학원에서 주체사상이 당·국가사업의 원칙이 되었음을 대외적으로 선언했다. “혁명에서 국제적인 지지성원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주인인 우리자신이 노력하고 투쟁하여야만 혁명을 진전시킬 수 있으며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것”이라며 “사상에서의 주체, 정치에서의 자주, 경제에서의 자립, 국방에서의 자위, 이것이 우리당이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는 립장”이라고 밝힌 것이다.<sup>19)</sup>

조선노동당은 앞에서 서술한 집단주의 교양과 마찬가지로 주체사상의 내면화도 1960년대 중반 경제침체 이후 더욱 의욕적으로 추진했다. 모든 당원과 인민을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켜 당면한 경제적 난관을 극복하려 한 것이다. 이를 위해 조선노동당은 주체사상을 본격적으로 정식화·체계화하고, 이와 더불어 주체사상 교양기구를 대폭 강화했다.

1967년 5월 당 중앙위원회 이후 주체사상 교양을 부쩍 강조하던 김일성은 1972년 9월 『마이니치신문』 질문에 대답하며 주체사상의 정식화 수준을 이전보다 높였다. 주체사상이란 “한마디로 말하여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사상”,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며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사상”이라

17) 김일성,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데 대하여(1955. 12. 28),” 『김일성 저작집 9』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18) 조선로동당출판사,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 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pp. 125~134.

19) 김일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사회주의건설과 남조선혁명에 대하여(1965. 4. 14),” 『김일성 저작집 19』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5), pp. 305~306



는 것이다. 또한 그는 인민대중의 “주인다운 태도는 자주적 립장과 창조적 립장에서 표현됩니다”라고 밝히고, 덧붙여 ‘정치적 자주성’이 없는 사람은 ‘육체적 생명’은 있더라도 ‘사회정치적 생명’은 없는 사람이라고 규정했다.<sup>20)</sup>

주체사상의 정식화·체계화 필요성은 1973년에 ‘3대혁명소조운동’이 본격화되면서 더욱 커졌다. 3대혁명소조원의 중요 임무 중 하나는 “자신들이 먼저 주체사상에 대한 학습을 강화하여 주체사상을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들고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 주체사상을 해설침투”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아래 김일성의 지적처럼 정작 소조원을 교육하는 이들조차 주체사상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현실이 대중운동 발전을 가로막고 있었다.

“우리는 주체사상에 대하여 연설도 많이 하고 글도 많이 썼습니다. 최근년간에만 하여도 우리는 일본 《요미우리신봉》 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과 일본 《마이니찌신봉》 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비롯한 많은 문헌들에서 우리 당의 주체사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였습니다. (...) 주체사상에 대하여 똑똑히 해석도 못하면서 필요없는 말을 이것저것 보태어 강연제강 같은 것을 만들어내려보내기보다는 우리가 한 말들을 그대로 발취하여 문헌집을 만들어주고 그것을 학습하도록 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 각급 당조직들에서는 간부들과 당원들의 학습정형을 늘 통제하고 검열하며 시험도 쳐야 합니다. 오늘 회의에 도당 제2비서들이 다 참가하였는데 다음날 중앙당에 모여놓고 주체사상에 대한 시험을 한번 쳐보는 것이 좋겠습니다.”<sup>21)</sup>

조선노동당의 공식 주장에 따르면 이러한 상황에서 주체사상을 발전시킨 정책을 수행한 이가 바로 김정일이다. 일단 김정일은 주체사상을 김일성 혁명사상의 ‘진수’로 자리매김했다. 김일성의 혁명사상, 곧 ‘김일성주의’에는 김일성이 주체사상을 기초로 발전시킨 혁명이론과 영도방법을 포함시켰다.<sup>22)</sup> 그리고 이후 몇 년간 당 이론선전 간부들과의 담화를 통해 주체사상의 정식화·체계화 작업을 이끌었고, 그 와중인 1978년 12월에는 「우리 식대로 살아가자!」는 전략적 구호를 새롭게 내놓는다.

마침내 김정일은 1982년 3월 김일성 탄생 70돌 기념 ‘전국주체사상토론회’에서 그동안의 주체사상 연구를 총결산하는 논문 「주체사상에 대하여」를 발표했다. 또 몇 년 뒤에는 「주체사상은 인류의 진보적사상을 계승하고 발전시킨 사상이다」, 「주체사상 교양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주체의 혁명관

20) 김일성, “우리 당의 주체사상과 공화국정부의 대내외정책의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1972. 9. 17).” 『김일성 저작집 27』 (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1984), pp. 390~396.

21) 김일성,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 수행에서 남포시 당조직들 앞에 나서는 과업에 대하여.” 『김일성 저작집 28』 (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1984), pp. 248~249.

22) 당력사연구소, 『김정일동지락전』 (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1999), p. 151. 김정일,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하기 위한 당사상사업의 당면한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1974. 2. 19).” 『김정일 선집 4』 (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1994), p. 15.

을 튼튼히 세울 데 대하여」 같은 담화를 통해 이 논문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김정일에 따르면 주체사상은 사람이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이며, 사람이 세계를 개조하고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데서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철학적 원리’(주체철학)를 기초로 삼아, 역사가 인민대중의 투쟁에 의해 발전한다는 ‘사회역사원리’(주체사관)와 당이 인민대중을 지도할 때 지켜야 할 ‘지도적 원칙’을 규명해낸 사상이다.

김정일은 이렇게 주체사상을 정식화·체계화해나가는 동시에 주체사상을 인민들에게 전파시켜나갈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를 강화해나갔다. 예를 들어 김정일은 1973년 3월에 그동안 여러 명칭으로 불리던 학습반을 ‘김일성동지혁명사상학습반’으로 바꾸고 모든 학습반들에서 김일성 저작을 기본교재로 학습하도록 지시했다. 그해 11월에는 1차 전국예술인학습경연대회를 계기로 ‘문답식학습방법’을 정립했고, 1974년 봄부터는 ‘녹음강연’도 시작했다.<sup>23)</sup> 모두가 주체사상 학습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이었다.

한편 『로동신문』을 포함한 모든 대중매체도 주체사상 교양에 동원됐다. 김정일은 1974년에 ‘사설혁명’을 발기하며 당 기관지 『로동신문』 사설의 주요 주제를 경제실무에서 정치사상으로 바꾸도록 했다.<sup>24)</sup> 또한 그해 5월 조선기자동맹 중앙위원회를 계기로 당보를 넘어 모든 대중매체의 핵심 임무로 주체사상 선전을 제시했다. “모든 사회성원들을 참다운 김일성주의자로 만들며 사회를 김일성주의의 요구대로 개조하며 나아가서 세계혁명의 승리를 이룩해 나가는데 적극 이바지하는 것”을 모든 출판물, 통신, 방송의 ‘기본사명’으로 규정하고, 이를 올바르게 수행하기 위해 시급하게 ‘신문혁명, 보도혁명, 출판혁명’을 일으킬 것을 요구한 것이다.<sup>25)</sup> 이 밖에 가극, 연극, 영화 등 문학예술작품들도 주체사상 전파의 효과적 수단으로 적극 활용했다. 1970년대는 한마디로 정식화·체계화되던 주체사상(지배이데올로기)이 여러 교양기구들(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을 통해 끊임없이 당에서 인민에게 주입되던 시기였다.<sup>26)</sup>

### Ⅲ. 체제위기 속 전통적 지배이데올로기의 영향력 약화

1990년대 중반 북한사회는 심각한 위기에 처했고, 이 미증유의 위기는 이전까지 어느 정도 유지됐던 전통적 지배이데올로기의 영향력을 빠르게 약화시켰다. 북한사회의 위기는 크게 경제, 정치사상, 안보라는 세 가지 범주의 현상들로 구성된다. 이 장에서는 1980년대 이후 경제·안보 위기가 심화되는 과정에서 ‘집단

23) 당력사연구소, 『김정일동지락전』, p. 141, p. 157.

24) 김정일, “사설혁명을 일으킬데 대하여(1974. 2. 22),” 『김정일 선집 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4), p. 79.

25) 김정일, “우리 당 출판보도물은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에 이바지하는 위력한 사상적무기이다(1974. 5. 7),” 『김정일 선집 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4).

26) 김진환, “북한 지배이데올로기의 형성과 내면화,” pp. 396~415.

주의'와 '주체사상'의 영향력이 어떻게 약해졌는지 살펴보겠다.<sup>27)</sup>

## 1. 경제후퇴와 대외관계 악화

북한 당국은 전후에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이라는 목표를 설정한 이래,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한 원료·연료 국산화에 주력해왔다. 북한 지역에 풍부하게 매장된 '석탄'과 이를 활용한 '화력발전'이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의 중추 역할을 해 왔던 것이다. 하지만, 197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로 넘어오면서 석탄생산이 한계에 도달하며,<sup>28)</sup> 북한 경제에 빨간불이 켜지기 시작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의 북한 에너지 수급 통계를 활용한 연구에 따르면, 석탄 생산 연평균 증가율은 1973~1977년 4.72%에서 1978~1986년 2.01%로 내려가더니 1987~1992년에는 0.86%로까지 떨어졌다.<sup>29)</sup> 한국은행도 북한 석탄 생산량이 1989년 4,330만 톤을 기록한 뒤 매년 감소해 1993년에는 2,710만 톤 밖에 생산하지 못했다고 추정했다. 북한 당국이 발표한 숫자들을 자료로 계산해 봐도 1977~1984년 연평균 5.46%를 기록하던 생산증가율은 1985~1989년 연평균 2.53%로 떨어졌다.

이처럼 석탄생산이 한계에 도달하면서 전력생산이 가장 먼저 타격을 입었다. 1970년대 중반 북한 지역에 왕가뭄이 들면서 수력발전이 큰 타격을 입은 뒤 북한 당국은 자연기후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는 화력발전 비중을 높여 나갔다. 이 결과 1971년 수력 74%, 화력 26%에서 1981년 수력 62%, 화력 38%로 전체 전력설비에서 화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났고, 1991년에는 수력 53%, 화력 47%로 절반 정도씩 점유하는 구조로 바뀌었다.<sup>30)</sup> 이처럼 1980년대를 거치며 화력발전 비중이 높아졌으므로, 석탄 생산량 감소는 구조적으로 전력 생산량 감소로 이어지는 것이다.

전력 생산량 감소는 강철생산에 지장을 초래했고, 금속공업 부진은 곧바로 기계공업에 악영향을 끼쳤다. 또한 기계공업 부진으로 채취 설비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면서 채취공업 상황은 더욱 나빠져 갔다. 화학공업 역시 1970년대 후반을 지나면서 원자재 부족, 전력 부족, 수송 문제, 외화 부족 등으로 정상적 생산을 하지 못했다. 그야말로 구조적 악순환이었다.

이와 같은 중공업의 전반적 부진은 식량과 생필품을 생산하던 농업과 경공업

27) 3장은 아래 글을 수정·보완했다. 김진환, 『'북한사회'라는 배의 항해 이야기』 (대전: 국방정신전력원, 2019), pp. 18~35.

28) 석탄생산이 한계에 도달한 이유는 구조적이고 복합적이다. 첫째, 탄광 심부화(深部化)로 채산성이 빠르게 악화됐고, 둘째, 채탄 설비는 양적으로 부족하고 질적으로도 낙후돼 있었으며, 셋째, 탄광 노동자들의 생산의욕도 저하됐기 때문이다.

29) 양문수, 『북한경제의 구조 : 경제개발과 침체의 메커니즘』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1), pp. 318~321.

30) 장영식, 『북한의 에너지 경제』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1994), pp. 122~127. 정우진, 『북한의 에너지 산업』 (서울: 공보처, 1996), pp. 81~83.

에도 악영향을 끼쳤다. 농업·경공업과 가장 밀접했던 중공업은 화학공업이다. 농업에 필수적인 화학비료, 농약, 살초제 등과 화학섬유, 합성수지 같은 경공업 원자재 제공을 화학공업이 담당해왔기 때문이다. 화학공업 부진에다가, 농업 기계화의 기반인 기계공업 부진이 더해지면서 북한 연평균 알곡증가율은 1985~1989년 -1%, 1990~1992년 -2.5%를 기록하며 뒷걸음쳤다. 생필품 생산 역시 부진해졌는데, 중공업 부진과 생필품 생산부진의 관계는 아래에 소개하는 김일성의 1984년 발언, 그리고 김정일이 1992년 봄에 인민소비품 자급 원칙에서 벗어나 경제적으로 유익할 경우 ‘완제품 수입’까지도 독려한 사실 등을 통해 추정해볼 수 있다.

“채취공업에서 석탄을 제대로 생산하지 못하다보니 전력공업과 화학공업 부문에서 생산에 지장을 받고 있으며 화학공장들에서 여러 가지 화학제품을 원만히 생산하지 못하다보니 경공업공장들을 만부하로 돌리지 못하여 인민생활을 높이는 데 적지 않은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sup>31)</sup>

“다른 나라에서 사다쓰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익한 일부 소비품까지 원료, 자재를 사다가 자체로 생산해 쓸 필요는 없습니다. 더우기 오늘날 우리 나라의 전력사정이 긴장한 조건에서 세계시장에 흔한 값싼 소비품까지 다른 나라에서 원료, 자재를 사다가 국내에서 질이 낮은 제품을 생산하면 전력이나 낭비하였지 리득 볼 것이 없습니다. (...) 일부 대중소비품을 사다쓰는데 맞게 나라의 경공업구조를 어떻게 개선하겠는가 하는것도 연구하여야 합니다.”<sup>32)</sup>

설상가상으로, 1980년대에는 경제 후퇴를 가속화시키는 대외적 요인까지 나타났다. ‘세력 불균형적 탈냉전’이 심화되면서 북한과 중국·소련의 전통적 유대관계가 해체된 것이다.

‘탈냉전’은 자본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의 대립관계 약화 또는 해체를 의미한다. 따라서 탈냉전은 언뜻 판단하면 북한 당국에게 좋은 외적 조건이 될 수 있다. 세계적 화해 분위기에 편승해 남한·미국·일본 당국과의 오랜 적대관계를 완화시키고, 이에 따라 안보에 투입하던 자원을 많은 부분 경제 건설, 인민생활 향상에 돌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로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 바로 탈냉전이 양 진영의 세력 ‘균형’ 속에서 자발적 합의를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1970년대 후반 시작된 초기 탈냉전부터 1980년대 후반 시작된 후기 탈냉전까지, 양 진영의 대립관계 약화 또는 해체는 자본주의 진영의 일방적인 우위, 곧 ‘세력 불균형’ 상태로 진행됐고, 이에

31) 김일성, “일군들속에서 혁명성,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높일데 대하여(1984. 3. 13),” 『김일성 저작집 38』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p. 251.

32) 김정일, “경공업을 발전시키며 경제관리연구사업을 잘할데 대하여(1992. 4. 4),” 『김정일 선집 1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pp. 22~25.

따라 탈냉전은 북한 당국에게 기회가 아니라 ‘대외관계 악화’라는 또 하나의 위기 요소를 안겨 줬다.

먼저 중·일 평화우호조약 체결(1978년), 중·미 수교(1979년) 등으로 시작된 초기 탈냉전은 북·중 양국이 1960년대 중반 갈등에도 불구하고 지켜왔던<sup>33)</sup> 전통적 유대관계에 구조적 균열을 가져왔다. 예를 들어 중국 당국은 1983년 5월 중국 민항기 납치 사건, 1985년 3월 중국 어뢰정 사건 등을 계기로 자연스럽게 남한 당국과 공식접촉을 시작했고, 북한 당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986년 서울 아시안 게임에 선수단 수백 명을 참가시켰다. 반면에 북한 전체 무역액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낮아져 수출은 1982년 23.4%에서 1988년 13.2%, 수입은 같은 기간 19.2%에서 11.9%로까지 떨어졌다. 중국은 이제 더 이상 항일무장투쟁과 한국전쟁 때 북한과 피를 나눈 혈맹(血盟)이 아니었다.

1980년대 중반부터는 고르바초프가 집권한 소련마저 미국, 일본, 남한과의 관계개선에 나서면서 북·소 경제관계가 소원해졌다. 소련의 대북 경제원조는 1985년 9,600만 달러에서 1987년 6,200만 달러로 축소됐고, 소련이 무상원조, 차관공여 대신 합영·합작 방식의 경제협력을 지향하면서 북한의 대소 무역적자도 1985년 약 3억 달러에서 1988년 약 8억 5,500만 달러로 크게 늘어났다. 특히 1990년 4월에 소련이 1991년부터 양국무역을 완전히 국제가격에 따라 진행하며 경화(硬貨)로 할 것을 요구한 결과 1990~1991년 사이 양국 무역액은 22억 달러 이상 줄어들었다. 여기에 후기 탈냉전에 따른 ‘동유럽 시장 붕괴’ 충격까지 더해져 북한 무역총액은 1990년 약 45억 6천만 달러에서 1991년 약 25억 9천만 달러로 ‘반 토막’나 버렸다([표 2]). 중국 역시 1991년 5월 북한에 북·중 무역을 국제시장가격과 경화결제로 진행할 것을 통보했고, 1992년 1월에는 정부 간 무역을 종래 물물교역에서 현금결제로 전환하는 협정 체결, 1992년부터 원유에 대한 경화결제 요청 등 북·중 경제관계를 조정해갔다.

[표 2] 북한-소련 무역액과 북한의 대외무역 총액 (단위: 백만\$)

33) 북·중관계는 1960년대 중반 소련공산당 새 지도부에 대한 양국 평가가 엇갈리고, 중국이 미국과 전쟁 중이던 베트남 지원에 소극적 자세를 보이면서 흔들렸다. 중국 문화혁명 홍위병들이 조선노동당 지도부를 ‘수정주의자’로 비난한 것도 북·중관계 악화 원인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이러한 갈등은 문화혁명 열기가 어느 정도 가라앉고 북한 역시 더 이상 중국과의 관계악화를 원치 않으면서 몇 년 지나지 않아 수습됐다.

연도	소련과의 무역액		대외무역 총액	
	수출	수입	수출	수입
1984	451.0	428.0	1,186.0	1,269.0
1985	485.1	785.5	1,285.2	1,899.0
1986	642.0	1,078.6	1,368.2	1,974.9
1987	717.4	1,329.2	1,577.9	2,491.0
1988	883.1	1,738.5	1,766.9	2,899.4
1989	878.7	1,471.8	1,616.7	2,670.0
1990	1,047.4	1,516.3	1,820.1	2,741.3
1991	171.0	176.1	886.6	1,719.7
1992	65.2	227.1	868.5	1,649.8
1993	47.5	306.9	908.7	1,666.0
1994	40.0	100.0	860.5	1,248.2

※ 출처 : 한국개발연구원, 『북한경제지표집』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1996), p. 150 <표 IX-7>, p. 152 <표 IX-9>를 재구성.

결국 사회주의 진영의 양대 강국인 소련과 중국이 각각 1990년 9월, 1992년 8월에 남한과 수교하면서 북한은 외교적으로 고립돼 버렸다. 북한은 “딸라로 팔고 사는 《외교관계》”라며 소련의 변심을 맹비난했고,<sup>34)</sup> 김일성 주석은 남한-중국 수교 4개월 전 방북한 중국 양상쿤 주석에게 심사숙고를 요청했지만 소련, 중국의 ‘북한 떠나기’를 멈춰 세울 수는 없었다.

## 2. 정치사상적 동요와 안보 위기 고조

이처럼 대내외 원인들의 결합으로 경제 후퇴가 본격화되면서 북한 인민들과 간부들 사이에서 개인이기주의가 성장하고 패배주의가 확산되기 시작했다. 북한 당국의 지배에 방해되는 정치사상적 동요, 곧 전통적 지배이데올로기의 영향력 약화가 시작된 것이다.

개인이기주의는 이른바 ‘부업경리’를 제도적 기반으로 성장했다. 부업경리란 “기본경리에서 리용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리용되는 생산적 예비를 리용하여 **추가적 수입을 얻을 목적으로** 조직되는 경리”(강조는 필자)로 부업경리에서 나오는 생산물은 국영상점, 직매점, 농민시장 등에 내다 팔 수 있다.<sup>35)</sup> 북한 당국은 1980년대 초반 경제침체에 대응해 부업경리 확대 정책을 펼쳤는데, 이 결과 북한 사회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가 시작됐다.

첫째, 북한 인민들이 국영상점, 직매점, 농민시장 등에 부업생산물을 내다 파는 과정에서 국가가 애당초 정해놓은 ‘국정가격’이 아니라,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합의가격 또는 ‘시장가격’에 점차 눈을 뜨게 됐다. 둘째, 부업경리가 활성화되면서 북한사회의 지배이데올로기인 ‘집단주의’와는 상반되는 모습, 곧 “개인의 이익

34) 『로동신문』, 1990년 10월 5일 2면 논평.

35) 주체경제학연구소, 『경제사전 1』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p. 637, pp. 315~316.

만을 추구하는 로동”<sup>36)</sup>, “가내작업반과 부업반을 조직운영하고 가내편의봉사사업을 벌리는 과정에 일부 사람들 속에서 지나치게 많은 수입을 얻고 개인리기주의를 부리는 현상”<sup>37)</sup> 등이 나타났다.

셋째, ‘농민시장’의 이용행태와 거래품목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다. 북한 당국은 협동농장 농민들이 부업생산물을 판매한 수입으로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소비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도시 노동자들은 국가가 채 보장해주지 못한 부식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농민시장’을 허용해왔다. 하지만 북한 당국은 시장경제가 지나치게 활성화되지는 않도록 1개 군에 2곳 정도로 농민시장 설치 제한, 장날을 협동농장 휴식일로 제한, 식량 거래 금지, 공업상품 판매 통제 같은 조치를 취해 왔다. 그런데 경제침체, 부업경리 활성화가 맞물린 1980년대 후반부터 도시 노동자들이 농민시장에서 부식물을 구입하는 빈도, 농민시장 지출이 생활비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이 점차 늘어났고, 법적으로 금지되던 식량 거래도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이다.<sup>38)</sup>

정치사상적 동요의 또 다른 측면인 ‘패배주의 확산’은 간부들 사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김일성은 패배주의를 “부닥치는 난관 앞에서 겁을 먹고 물러서거나 자포자기하는 유해한 사상”으로 정의했는데, 이러한 패배주의는 그가 인정했듯 1980년대 중반 이후 고르바초프의 개혁이 심화되면서 사회주의 건설에서 더 이상 “국제주의적 협조를 기대하기” 어려워지자 퍼져 나갔다. 김일성은 이런 조건일수록 간부들이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더욱 높이 발휘해 난관을 헤쳐 나가자고 호소했다.<sup>39)</sup> 하지만 1990년대 들어서는 간부들 뿐 아니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패배주의적 현상까지 문제시되기 시작했고,<sup>40)</sup> 1991년 정초에는 김정일이 경제지도 간부들 속에서 “직무태만, 조건타발, 요령주의” 등 “별의별 형태로” 나타나는 패배주의적 현상을 “해부학적으로 분석하여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을 정도로<sup>41)</sup> 패배주의 확산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됐다.

그렇다면 북한 당국은 이러한 정치사상적 동요에 어떻게 대응했을까? 북한 당국의 선택은 ‘법적 통제’ 강화였다. 김정일이 1984년에 인정했듯 “빈 밥그릇”을 앞에 둔 인민들이 교양만으로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사상”을 가질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면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는 것과 함께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한계단 더 높여야” 했지만<sup>42)</sup> 실제 경제상황은 반대로 흘러갔다.

36) 김정일, “로동행정사업을 더욱 개선강화할데 대하여(1989. 11. 27),” 『김정일 선집 9』,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pp. 412~415.

37) 김정일, “경공업혁명을 철저히 수행할데 대하여(1990. 6. 2),” 『김정일 선집 10』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p. 147.

38) 정은미, 『북한의 국가중심적 집단농업과 농민 사경제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p. 174.

39) 김일성,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치자(1987. 1. 3),” 『사회주의 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7』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pp. 2~10, p. 16.

40) 김정일, “경공업혁명을 철저히 수행할데 대하여(1990. 6. 2),” p. 155.

41) 김정일, “당사업을 더욱 강화하며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치자(1991. 1. 5),” 『김정일 선집 1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pp. 37~38.

42) 김정일, “인민생활을 더욱 높일데 대하여(1984. 2. 16),” 『김정일 선집 8』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결국 김정일은 1992년 벽두부터 “계급투쟁이 계속되는 과도적사회인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국가가 반사회주의적요소들에 대한 독재의 기능도 수행하여야 합니다”라고 경고한 뒤,<sup>43)</sup> “민심을 소란시키고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만들어 군중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 “불량행위”, “법을 어기고 국가사회재산을 류용하거나 탐오랑 비하는 현상”, “상적행위를 비롯하여 돈과 물건을 가지고 부정부패행위를 하는 현상” 등 “비사회주의적 현상” 반대 투쟁을 벌여 나갔다.<sup>44)</sup> 요컨대 1990년대 초반 북한사회에서는 비사회주의적 행위를 해서라도 ‘점차 비어가는 밥그릇’을 채우려는 인민들과 이를 법적으로 통제하려는 당국이 충돌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편, 북한과 중국·소련의 관계가 질적으로 달라지던 1980년대 후반부터 북한 핵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미국의 대북 강압도 본격화됐다. 레이건 행정부는 1988년부터 북한 당국이 평안북도 영변 원자로 부근 건물에서 폐연료봉을 재처리해 무기용 플루토늄을 추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북한 당국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조속한 안전조치협정 체결을 종용하기 시작했다.

경제 후퇴와 대외관계 악화에 시달리며 외교적 활로가 절실했던 북한 당국은 결국 1991년 7월 국제원자력기구와의 안전조치협정에 가서명했고, 그해 12월에는 남한 당국과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북한 당국은 이후에도 1992년 1월 안전조치협정 정식 서명, 4월 최고인민회의에서 안전조치협정 비준, 5월 IAEA에 핵물질 관련 최초보고서 제출, 1992년 5월~1993년 2월 사이 6차례 임시사찰 수용 등 협조적 태도를 유지했다. 하지만, 미국·IAEA는 북한 당국이 신고하지 않은 시설 2곳에 대한 특별사찰을 요구하며 압박 강도를 높였고, 북한 당국이 이에 맞서 1993년 3월 핵무기비확산조약(NPT) 탈퇴를 선언하며 안보 위기가 극적으로 고조됐다.

### 3. 심각한 경제난과 정치사상적 동요 심화

안보 위기는 1994년 봄 클린턴 행정부가 한반도에 병력과 무기를 증파하고, 영변 핵시설 공격까지 논의하면서 최고조에 이르렀다가 1994년 10월 제네바에서 북한의 핵개발 동결과 미국의 대북경수로 제공, 북·미 관계정상화 추진 등이 담긴 북·미 기본합의를 채택하며 한 고비를 넘겼다. 반면에 그해 가을부터는 연이은 자연재해가 경제·정치사상 위기를 심화시켰다.

북한 당국 발표에 따르면 1994년 9월 주요 곡창지대인 황해남도과 황해북도에 쏟아진 우박으로 농경지 17만ha가 피해를 입어 식량 102만 톤이 사라졌다. 또한 1995년 여름에는 폭우로 국토의 75%(8개 도, 145개 군)와 주민 520만6천 명이

1998), p. 4.

43) 김정일, “사회주의건설의 역사적교훈과 우리 당의 총로선(1992. 1. 3),” 『김정일 선집 1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p. 309.

44) 김정일, “우리 인민정권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자(1992. 12. 21),” 『김정일 선집 13』,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p. 274.



피해를 입었으며 그 중 이재민 481,740명(가옥 6만6,348채)이 발생했고, 1994년에 마련해 저장해 둔 식량 626,200톤도 사라졌다. 북한 당국은 홍수 피해 조사를 위해 그해 9월 1~6일 현지조사를 진행한 유엔재난관리팀(UNDMT)에게 연간 곡물 필요량을 7,639천 톤으로 보고했고, 유엔재난관리팀은 여러 자료를 종합해 1996년도 식량 부족량을 300만 톤 정도로 추계했다.

이와 달리 1995년 12월 현지조사를 실시한 유엔식량농업기구(FAO)/유엔세계식량계획(WFP)은 1996년 곡물 필요량을 599만 톤으로 추산하고 북한 국내생산과 외부로부터의 수입·증여 등을 합치면 이용가능 식량이 480만 톤이므로 116만 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다. 농촌진흥청 추정치, 북한 인구 통계, 세계보건기구(WHO) 권장 1인당 연간 곡물소비량 등을 종합해 계산해보더라도([표 3]), 북한 사회가 1996년 이후 최소 100만 톤 정도가 부족한 만성적 식량문제를 갖게 된 건 분명하다.

[표 3] 북한의 식량 수급 추이 (단위: 천 명, 천 톤)

연도	인구*	식량 필요량**	전년도 생산량***	부족량
1995	21,715	4,756	4,125	631
1996	21,991	4,816	3,451	1,365
1997	22,208	4,864	3,690	1,174
1998	22,355	4,896	3,489	1,407
1999	22,507	4,929	3,886	1,043
2000	22,702	4,972	4,222	750
2001	22,902	5,016	3,590	1,426
2002	23,088	5,056	3,946	1,110
2003	23,254	5,093	4,134	959
2004	23,411	5,127	4,253	874
2005	23,561	5,160	4,311	849
2006	23,707	5,192	4,537	655
2007	23,849	5,223	4,484	739
2008	23,934	5,242	4,005	1,237
2009	24,062	5,270	4,306	964
2010	24,187	5,297	4,108	1,189

\* 통계청이 1993년과 2008년 북한 인구센서스 자료를 토대로 추정한 수치

\*\* 식량 필요량 = 인구 × 세계보건기구(WHO) 권장 1인당 연간 곡물소비량 219kg(1일 600g×365)

\*\*\* 농촌진흥청 추정치

1995년 홍수 피해를 복구하기도 전에 1996년 여름 집중호우가 내렸고, 1997년 여름에는 정반대로 큰 가뭄이 들었다. FAO/WFP는 1996년 10월 19일~11월 2일 현지조사 결과 홍수로 인한 곡물생산량 감소를 30만 톤으로 추정했고, 1997년 10월 21일~11월 4일 현지조사 때는 특히 옥수수 생산량이 전년 대비 51% 감소했을 정도로 피해가 심각하다고 보고했다.

이처럼 거듭된 자연재해 여파에, 식량 확보를 위한 노동자의 작업장 이탈까지 더해지면서 공업 생산력도 급락했다. 먼저, 식량난에 따른 노동력 손실, 1995~1996년 탄광 침수 등으로 1998년 석탄 생산량은 1986년 대비 28~37% 미만으로 급감했다([표 4]). 이 여파로 1997년 7월 현재 화력발전은 발전시설 용량 310만kW 중 50만kW만 가동됐고, 수력발전소도 1997년 여름 가뭄으로 인해 70만kW 밖에 가동하지 못했다. 이러한 석탄·전력 생산량 급감이 강철 생산과 화학비료 생산에 악영향을 끼쳤음은 물론이다.

요약하면, 1970년대부터 성장속도가 둔화되던 공업 생산력은 1980년대 중반을 정점으로 계속 떨어지다가, 1994년을 분기점으로 이후 몇 년 동안 자연재해와 식량난의 추가적 영향으로 급락했다. 특히 공개된 자료로 확인 가능한 석탄·전력·강철·화학비료 생산량은 1990년대 중반을 거치며 1960년대 중·후반 수준으로 떨어져버렸다. 중요 공업제품 생산력이 ‘30년’ 가량 후퇴한 것이다([표 4]).

[표 4] 북한의 중요 공업제품 생산량 하락 추정

연도	석탄(만 톤)	전력(억kWh)	강철(만 톤)	화학비료(만 톤)**
1968	2,300	-	-	-
1969	-	-	171.9	32.5
1970	2,750	165	220	37.5
1986	7,800	520	673	130
1987	8,001	550.8	683	145
1988	9,777	-	-	-
1989	8,500	555	593	130
1990	-	555	700	-
1993*	10,920	676	875	195
1997	-	144.5 미만	144 미만	-
1998	2,190~2,920 미만	-	-	-
1999	-	-	-	6.4

\* 1993년까지는 북한 정부 발표. 1997년 이후는 북한 정부가 국제기구에 제출한 통계, 북한 정부 인사의 공개 발언 등을 토대로 추정

\*\* 성분량=실증량×0.25

※ 출처 : 김진환, 『북한위기로 : 신화와 냉소를 넘어』 (서울: 선인, 2010), p. 296 <표 3-9>

극심한 경제난은 자연스럽게 부정부패, 비리, 뇌물, 불법적 이동과 장사 같은 정치사상적 동요의 심화로 이어졌다. 식량 사정이 나빠지면서 여행증명서 발급이 양적으로 급증하고, 발급을 둘러싼 뒷거래나 위조가 횡행했다. 일부 농민들은 쌀을 당국에 수매하지 않고 감춰둔 채 시장에 내다파는 “상적 행위”에 몰두했다. 김정일이 목격하고 말한 것처럼, 1990년대 중반 북한 인민의 최대 과제는 식량 확보였다.

“당일군들이 농장원들 속에 들어가 정치사업을 실속있게 하면 군량미를 보장하

는 문제도 풀 수 있고 상적행위를 하는 현상도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 협동농장들과 농장원들이 이러저러한 구실 밑에 적지않은 식량을 숨겨두고 있습니다. 당일군들이 농장원들 속에 들어가 그들에게 우리는 지금 지난 3년 동안 연이어 흉년이 들어 국제기구에서 주는 식량을 받아먹고 있다, 전세계가 식량이 없다고 아우성을 치는데 지금은 쌀을 주겠다는 나라도 없다, 식량문제 때문에 나라가 큰 곤란을 겪고 있다, 쌀이 없어 군량미를 보내주지 못하고 있다, 당신들의 아들 딸과 손자들이 다 군대에 나가 있는데 당신들이 군량미를 보내주지 않으면 누가 보내주겠는가, (...)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돈벌이를 하느라고 식량을 밀매하고 있다, 이것은 인간의 양심마저 저버린 행위가 아닌가고 내놓고 말해주어야 합니다.”<sup>45)</sup>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 쪽으로 가면서 보니 식량을 구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길가에 쪽 늘어섰습니다. 다른 지방에 가보아도 어디에나 식량을 구하러 다니는 사람들로 차 넘치고 있으며, 역전과 열차칸에는 식량을 구하러 다니는 사람들로 혼잡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sup>46)</sup>

이처럼 인민들의 이동이 늘어나면서 정치사상 교양의 기반인 조직생활도 이완됐다. 경제난이 심화되는 만큼 개인이기주의적 행위, 비사회주의적 행위가 늘어났지만 기존 정치사상교양 체계로 이러한 동요를 수습하는 게 갈수록 어려워졌던 것이다.

또한 식량·생필품 부족과 당국의 대외경제관계 발전 방침까지 맞물려 ‘외화’를 둘러싼 잡음과 비리도 끊이지 않았다. 외화가 최고의 뇌물이 됐고,<sup>47)</sup> 외화벌이 관련 직장은 김정일의 공개 경고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청년들의 선망대상으로 떠올랐다.

“무역부문과 합영부문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잘 교양하는데 주의를 돌려야 합니다. 사람이 돈맛을 들이게 되면 사상적으로 변질되기 마련입니다. (...) 일부 대학졸업생들이 전공부문에 가서 일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역부문이나 합영부문 같은데 가겠다고 한하는데 이것은 그들이 자기를 먹여 주고 입혀 주고 공부시켜 준 당과 조국을 위하여 복무하겠다는 생각보다 제 혼자 잘 살아 보겠다는 생각부터 앞세운다는것을 말하여 줍니다.”<sup>48)</sup>

그렇다면, 어떠한 구매수단도 변변치 않던 벼랑 끝 인민들은 어떻게 했을까?

45) 김정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1996. 12. 7),” 『월간조선』 1997년 4월호, 조선일보사.

46) 위의 글.

47) 『중앙일보』, 1995년 1월 20일 5면, 1995년 3월 7일 8면.

48) 김정일, “당의 무역제일주의방침을 관철하는데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1995. 2. 1),” 『김정일 선집 1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p. 11

그들의 선택은 체제 밖으로의 불법 이동, 곧 ‘탈북’이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탈북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중국 당국이 북한 당국에 송환한 불법월경자 숫자가 1996년 580명에서 1997년 5,400명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미루어 보면<sup>49)</sup> 식량난을 포함한 경제파탄이 탈북 급증의 원인인 건 분명하다.

#### IV. 새로운 지배이데올로기의 내용과 특징

이러한 미증유의 위기를 맞아 북한 당국이 선택한 대응책은 ‘선군정치’와 ‘경제개혁’이었다. 체제위기 이후 북한 당국의 지배이데올로기 행보를 한 마디로 요약하면, 한편으로는 인민에게 선군정치의 정당성과 효과성을 주입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개혁, 곧 시장기구의 기능과 역할 확대에 따른 ‘부작용’에 대처하는 것이다. 전자는 주로 김정일 통치 시기에 이루어졌고, 후자는 시장화가 좀 더 진전된 김정은 통치 시기 북한 당국의 주요 과제가 되고 있다.

##### 1. 김정일 통치 시기 : 선군정치와 선군사상

1994년 7월 8일 김일성 사망으로 최고 권력자가 된 김정일은 체제위기를 맞아 국가사업에서 군사(軍事) 부문에 우선적으로 주력하고, 군대를 체제위기 극복의 첨병으로 내세우는 ‘선군정치(先軍政治)’를 시작했다. 선군정치는 크게 경제, 정치사상, 안보 세 측면으로 나누어 전개됐다.

북한 당국은 식량난, 에너지난, 외화난 등을 맞아 발전소, 탄광, 농장, 주택건설장 등 주요 생산 현장에 군대의 노동력을 동원하고([표 5]), 군대의 자체적인 경제 활동을 강화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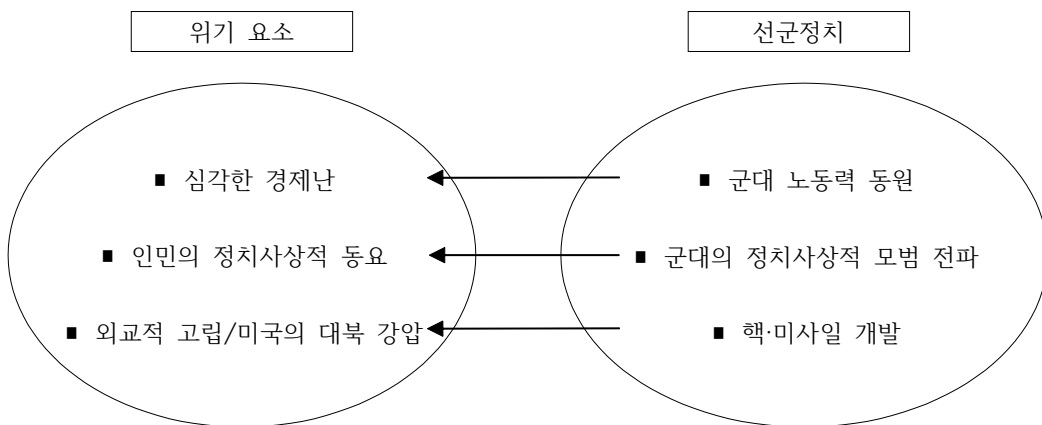
[표 5] 1990년대 군대 노동력 동원과 성과

49) 이금순, 『북한주민의 국경이동 실태 : 변화와 전망』 (서울: 통일연구원, 2000), p. 69.

동원 시기	동원 장소·부문	동원 성과
1995. 11	안변청년발전소(금강산) 공사	1단계 공사 완공(1996. 9)
1997. 3	전국 협동농장	농업 생산량 증대 및 수확물 절취 방지
1997. 6	철도 부문	철도 부문 제도·질서 확립, 철길 보수, 객차·화차 수리
1997. 10	북창·덕천·득장 지구 탄광	북창화력발전연합기업소 전력생산량 2~3배 증대
1997. 10	금야 간석지(강원도)	광명성제염소 완공(1999. 10)
1998. 1	북창지구탄광연합기업소	10개월 동안 100여만 톤 확보탄량 조성, 10만여m 운탄선 철도화, 1,500여 대 탄차 재생 및 노후설비 보수·정비
1998. 7~ 2004. 7	전국 토지정리사업	새 땅 확보 및 기계화 영농 확대
1998. 11~ 2000. 10	평양-남포 고속도로	수송난 완화
1999. 1	전국 대규모 수력발전소 건설	안변청년발전소 2단계 공사, 태천 5호 발전소, 송원연제-태천연제 확장 공사 완공(2000. 10), 안변2호청년발전소 추가 완공(2002).
2000. 4	개천-태성호 물길공사	농업 기반시설 확충

이와 함께 북한 당국은 인민들 사이에서 조선노동당과 사회주의 혁명에 대한 불신, 이기주의적 행태, 탈북 등이 확산되어나가자, ‘혁명적 군인정신’<sup>50)</sup>처럼 군대가 만들어낸 정치사상적 모범 전과, 군대의 사회통제력 등을 통해 인민들의 정치사상적 동요를 통제했다. 끝으로 북한 당국은 주변국에 대한 재래식 무기 열세를 극복하고, 미국 당국을 협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핵탄두와 투발수단을 개발하기 시작했다([그림 2]).<sup>51)</sup>

[그림 2] 북한사회 위기와 선군정치



50) ‘혁명적 군인정신’은 김정일이 1990년대 중반 금강산댐 건설 과정에서 군대가 발휘한 정치사상적 모범, 곧 수령의 명령에 대한 절대적 복종과 충성, 사회주의 혁명에 대한 신념 등을 ‘혁명적 군인정신’이라고 부르고, 일반 주민들도 따라 배우게 하라고 지시하면서 북한 사회에 전파되기 시작했다.

51) 김진환, 『‘북한사회’라는 배의 항해 이야기』, pp. 40~42.

북한 당국은 2000년대 들어 공업·농업 생산 능력 회복, 조직생활과 대중운동의 재개, 남북정상회담, 북·미 협상, 중국·러시아와의 관계 복원 등을 통해 어느 정도 위기가 완화되자<sup>52)</sup> 선군정치 경험을 ‘이론화’하기 시작했다. 1960년대 중반 일시적 경제침체를 맞아 일제 강점기 민족해방투쟁, 전후 복구와 소련·중국과의 갈등 같은 경험을 토대로 ‘주체사상’을 정식화·체계화해 갔듯이, 1990년대 선군정치를 통한 위기 대응 경험을 토대로 ‘선군사상’을 정식화·체계화해나간 것이다.

북한사회의 가장 대표적인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는 『로동신문』이다. 따라서 『로동신문』은 북한사회 지배집단의 지배이데올로기 행보를 확인하는 1차 자료로서 유용성이 높다. 『로동신문』에 선군사상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건 2001년 4월 25일 사설이고,<sup>53)</sup> 2002년 10월 5일 『로동신문』에서는 “선군사상은 주체사상의 근본원리에 기초한 사상이며 주체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실천투쟁 속에서 나온 혁명사상”이라는 표현으로<sup>54)</sup>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의 관계를 언급했다. 곧이어 조선노동당은 2003년 신년공동사설에서 선군사상의 실천적 의의를 “주체사상에 기초한 우리 당의 선군사상은 사회주의위업수행의 확고한 지도적지침이며 공화국의 룡성번영을 위한 백전백승의 기치”라고 정리했다.

김정일이 선군사상을 공개적으로 처음 언급한 건 2003년 1월 29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이하 1.29담화)다. 그는 1.29담화에서 선군사상을 “선군후로의 사상”, 곧 노동계급이 아닌 군대를 혁명의 주력군으로 규정한(先軍後勞) 사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정의했다. 두 달 여 뒤에는 『로동신문』 편집국논설(2003. 3. 21)에서 선군사상을 “군사를 모든 것에 앞세울데 대한 군사선행의 사상이며 군대를 혁명의 기둥, 주력군으로 내세우고 그에 의거할데 대한 선군후로의 로선과 전략전술”로 정의함으로써<sup>55)</sup> 선군사상 정식화 작업은 일단락됐다.

특히 김정일은 1.29담화에서 “어느 때 어디에서나 로동계급이 혁명의 주력군으로 된다고 보는것은 선행리론에 대한 교조적관점”이라고 지적하면서 노동계급 대신 군대를 혁명의 주력군으로 내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sup>56)</sup> 그가 이처럼 군대를 혁명의 주력군으로 본 건, 위기에 처한 북한사회에서 개인이기주의가 확산되고 비사회주의 현상이 만연하는 등 인민대중 중에서 ‘군인이 아닌 인민’의 정치사상적 동요가 심각했기 때문이다. 아래 인용문처럼 위기 당시 김정일은 정치사상적 측면에서 ‘군인이 아닌 인민’보다 ‘군인’을 더 높이 평가하고 있었고, 이러한

52) 체제위기 ‘완화’의 원인과 양상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아래 글 참조. 김진환, 『북한위기관 : 신화와 냉소를 넘어』 (서울: 선인, 2010), pp. 421~525.

53) 진희관, “북한에서 ‘선군’의 등장과 선군사상이 갖는 함의,” 『국제정치논총』, 제48집 제1호 (2008), p. 384.

54) 위의 글, p. 389.

55) 위의 글, p. 390.

56) 김정일, “선군혁명로선은 우리 시대의 위대한 혁명로선이며 우리 혁명의 백전백승의 기치이다(2003. 1. 29),” 『김정일 선집 15』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5), pp. 356~360.

맥락에서 “혁명의 주력군 문제, 혁명과 건설에서 혁명군대의 역할문제에 대한 새로운 견해, 새로운 관점”<sup>57)</sup>을 제시한 것이다.

많은 군부대를 현지도하면서 전투적 기백이 넘치는 군인들의 기상을 보다가 김일성종합대학 학생들의 예술소조 공연을 보니 너무도 차이가 많습니다. 확실히 총을 메고 조국의 방선을 지키고 있는 군인들과 후방에서 책상머리에 앉아 공부하고 있는 대학생들이 다릅니다. (...) 사회의 청년들이 기백이 없고 양기가 없는 것은 청년동맹사업에도 문제가 있지만 기본은 당사업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군대에서는 당정치사업을 활발히 하고 있지만 사회의 당정치 사업은 맥이 없습니다. (...) 당일군들이 군중 속에 들어가 정치사업을 하는 것은 없고 신문과 방송에서만 떠드는데 인민들은 전기사정 때문에 텔레비존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인민들의 정치적 각성이 높아질 수 없습니다.<sup>58)</sup>

조선노동당은 이듬해 이러한 ‘새로운 주력군 이론’에 따라 혁명의 주체 이론도 보완했다. 선군정치 실행 이전에는 혁명의 주체를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로 규정했지만, 선군시대에는 군대가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혁명 주체도 ‘수령, 당, 군대, 인민의 통일체’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sup>59)</sup> 이처럼 선군사상 정착화 과정에서 인민대중을 ‘인민’과 ‘군대’로 나누는 이분법도 자리 잡아 나갔다.

한편 김정일은 1.29담화에서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선군정치의 관계를 해명하고 설명하는데 주의를 기울였는데<sup>60)</sup> 이와 관련해 조선노동당은 2004년판 당사(『조선로동당력사』)에서 주체사상의 요구, 곧 인민대중의 자주성 옹호·실현은 “인민대중의 자주적지향의 유린자이며 교살자인 제국주의가 남아있는 한” “오직 선군사상과 그 구현인 선군정치에 의해서만 확고히 실현될 수 있다”고 최종적으로 정리했다.<sup>61)</sup>

흥미로운 점은 2004년판 당사 발간 전후로 선군사상 창시자를 둘러싼 당 선전사업의 혼란이 존재했다는 사실이다. 조선노동당은 2003년 12월 10일 발간한 단행본까지 선군사상의 창시자는 김일성이라고 서술해 왔다. 그러다 2003년 12월 22일 『로동신문』에서 “선군사상의 창시자”는 김정일이라고 처음 썼다. 이른바 ‘김정일 창시론’은 2004년에 발간한 단행본에서 반복되다가, 2004년 12월 22일 『로동신문』에서 “아버이수령님은 선군사상의 창시자”라며 김일성 창시론으로 복귀했다. 당사 역시 2004년판 김정일 창시론에서 2006년판 김일성 창시론으로 바뀌었다.<sup>62)</sup>

57) 위의 글, pp. 358~359.

58) 김정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1996. 12. 7).”

59) 김진환, “조선로동당의 선군정치 서술,” 정영철 외, 『조선로동당의 역사학 : 조선로동당사 비교연구』 (서울: 선인, 2008), p. 233.

60) 김정일, “선군혁명로선은 우리 시대의 위대한 혁명로선이며 우리 혁명의 백전백승의 기치이다(2003. 1. 29).” pp. 364~365.

61) 당력사연구소, 『조선로동당력사』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4), p. 539.

이러한 혼란을 통해 우리는 김정일이 생전에 김일성의 혁명사상, 곧 ‘김일성주의’와 구별되는 자기 혁명사상의 ‘독자성’을 드러내기보다는, 자신의 역할을 김일성주의의 ‘심화발전’에 국한하는 방향으로 지배이데올로기 행보를 했음을 알 수 있다. 김정은 역시 김정일의 이러한 행보를 아래처럼 증언하고 있는데, 이 증언을 토대로 보면 앞에서 소개한 ‘선군사상 창시자 혼란’을 정리하는 과정에서도 김정일의 개입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김일성주의를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발전풍부화시킨 장군님의 특출한 업적으로 하여 이미전부터 우리 당원들과 인민들은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장군님의 혁명사상을 결부시켜 김일성-김정일주의로 불러왔으며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우리 당의 지도사상으로 인정하여왔습니다. 하지만 한없이 겸허하신 장군님께서 김정은주의는 아무리 파고들어야 김일성주의밖에 없다고 하시면서 우리 당의 지도사상을 자신의 존함과 결부시키는 것을 극히 만류하시었습니다.”<sup>63)</sup>

지금까지 알아본 선군사상 정식화와 마찬가지로, 선군사상 체계화도 김정일의 연설과 담화를 토대로 이루어졌다. 김정일은 1995년 1월 1일 조선인민군 다박솔 중대 현지도 때 훗날 ‘총대철학’으로 불리는 혁명원리를 처음 언급했고,<sup>64)</sup> 1.29 담화에서는 “혁명의 총대우에 혁명위업의 승리가 있고 나라와 민족의 자주독립과 번영도 있습니다.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시고 력사에 의하여 그 진리성이 확증된 주체의 혁명원리이며 혁명의 법칙”이라며 총대철학을 김일성주의의 일부로 포함시켰다.<sup>65)</sup>

나아가 김정일은 총대철학이 바로 선군사상의 ‘기초원리’라고 규정했는데,<sup>66)</sup> 현재까지 조선노동당이 정식화 한 내용을 보면 총대철학은 크게 두 가지 원리를 담고 있다. 하나는 “혁명은 총대에 의하여 개척되고 전진하며 완성된다는 원리”이고, 다른 하나는 “군대이자 곧 당이고 국가이며 인민이라는 원리”다. 정리하면, 김일성이 창시했다는 총대철학이 모든 국사 중에 군사를 앞세우고 군대를 혁명의 주력군으로 내세우는 김일성의 선군사상을 밑받침하고 있는 구조가 선군사상의 체계다([표 6]).<sup>67)</sup>

62) 진희관, “북한에서 ‘선군’의 등장과 선군사상이 갖는 함의,” pp. 388~389. 김진환, “조선로동당의 선군정치 서술,” pp. 238~240.

63) 김정은,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높이 모시고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가자(2012. 4. 6)』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3), pp. 6~7.

64) 외국문출판사, 『위인 김정일』 (평양: 외국문출판사, 2012), pp. 118~119.

65) 김정일, “선군혁명로선은 우리 시대의 위대한 혁명로선이며 우리 혁명의 백전백승의 기치이다(2003. 1. 29),” p. 353.

66) “김정일동지께서는 선군사상을 전일적으로 체계화하시면서 먼저 선군사상의 기초원리를 명백히 규정 해주시었다. 그것은 혁명은 총대에 의하여 개척되고 전진하며 완성된다는 총대철학이다.” 탁성일 편, 『선군-김정일정치』 (평양: 외국문출판사, 2012), p. 64.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정립하신 총대철학은 선군사상의 초석을 이루는 기초원리이다. 선군사상의 모든 원리와 원칙, 내용들은 총대철학으로부터 출발하고있으며 그에 기초하여 전개되고 체계화되어 있다.” 외국문출판사, 『위인 김정일』, p. 114.

67) 이상 김정일 통치 시기 지배이데올로기 행보는 아래 글을 수정·보완했다. 김진환, “김정은 시대 지배



[표 6] 주체사상과 선군사상 비교

	주체사상	선군사상
이론화 하는 경험 (시대 규정)	일제 강점기 민족해방투쟁, 전후 복구와 소련·중국과의 갈등 (주체시대)	선군정치를 통한 북한사회 위기 대응 (선군시대)
기초원리	주체철학	총대철학
혁명 주체	수령·당·대중의 통일체	수령·당·군대·인민의 통일체
혁명 주력	노동계급	군대

## 2. 김정은 통치 시기 : 시장화 진전과 이데올로기적 대응

북한 당국은 심각한 경제난 극복을 위해 2003년에 ‘종합시장’이라는 새로운 경제구역을 합법화시켰다. 3장에서 서술했듯이 북한 당국은 1950년대 후반 개인 상업이 없던 이후에도 ‘농민시장’만은 합법적으로 운영했다. 하지만 농민시장은 시장 이름 앞에 ‘농민’이 붙어 있듯이 판매 주체가 농민으로 제한돼 있었고, 협동농장 휴일에만 장이 섰기 때문에 상설시장도 아니었으며, 양곡과 공업제품 거래도 금지되는 등 경제주체의 생산의욕을 자극하는 기구로서 기능하기에는 어려운 시장이었다. 그러다 1990년대 들어 식량 배급이 끊기고, 국영상업망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자 농민시장에서 불법적인 식량·생필품 거래가 활발해졌고, 인민들은 부족한 식량과 생필품을 구하기 위해 전국 각지 암시장을 떠돌았다.

농민시장에서의 불법적인 식량·생필품 거래, 암시장 급성장 등에 직면한 북한 당국의 선택은 시장을 아예 계획의 ‘보완재’로 수용하는 것이었다. 북한 당국은 2003년 5월 5일에 ‘종합시장’을 공식적으로 설치함으로써, 1950년대 후반 사라졌던 개인 상업([표 1]의 ‘상인’)을 부활시켰다. 농민시장과 달리 종합시장에서는 누구나 장사를 할 수 있고, 양곡, 공업제품 등도 거래할 수 있다. 이렇게 개인 상업이 합법화한 대가로, 상인은 시장관리소에 시장사용료를 납부해야 하고, 국가에 ‘국가납부금’도 내야 한다([표 7]). 북한 당국 입장에서 보면 종합시장은 부족한 재정을 채우는 수단도 되는 셈이다.

[표 7] 농민시장과 종합시장 비교

이데올로기의 특징과 전망 : ‘김일성주의’에서 ‘김일성-김정일주의’로,” pp. 38~44.

	농민시장	종합시장
판매 주체	농민	개인, 국영기업소, 협동단체
거래 품종	농토산물	연유(석유제품), 생고무를 비롯한 국가전략물자들과 생산수단 등 판매금지 제품을 제외한 모든 농토산물과 식료품, 생활필수품, 수입상품 등
가격조절·통제	없음	쌀, 식용 기름, 사탕가루, 맛내기 등 중요지표들에 대해서만 실정에 맞는 '한도가격' 설정
시장사용료	없음	시장관리소에서 징수
세금	없음	매월 소득액 신고 뒤, 소득의 일정한 비율로 '국가납부금' 납부

김정은이 공업부문에서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농업부문에서 ‘포전담당책임제’를 도입하면서<sup>68)</sup> 시장화는 더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는 생산·분배 전 과정에서 경영책임자인 지배인의 자율권을 넓힌 제도다. 포전담당책임제는 협동농장 분조 안에서 3~5명 단위로 책임 논밭을 정해준 제도다. 3~5명 단위는 가족인 경우가 많으므로, 포전담당책임제는 사실상 가족 단위로 농사를 짓게 한 제도다. 이러한 제도들은 궁극적으로 생산주체들의 생산의욕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이에 따라 생산량이 늘어나면 시장으로 유입되는 생필품과 식량도 함께 늘어나게 된다.

북한사회에서는 2018년 현재 400개가 훨씬 넘는 종합시장이 운영되고 있다.<sup>69)</sup> 북한이탈주민 증언에 따르면 합법·비합법 시장은 이제 일상생활의 불가결한 요소가 되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한국으로 들어온 북한이탈주민 중 북한에 살 때 주로 입는 옷을 시장에서 구매했다고 증언한 북한이탈주민은 90%에 달하고 ([표 8]).<sup>70)</sup> 부족한 식량 역시 스스로 경작하거나<sup>71)</sup> 시장에서 구매해 해결하고 있다.

[표 8] 북한 주민의 의류 구입경로 (단위: 명, %)

68) “김정은 ‘5.30담화’와 내각 상무조,” 『통일뉴스』, 2015년 1월 6일.

69) “위성사진에 포착된 북 공식시장 증가, 최소 482개,” 『연합뉴스』, 2018년 2월 4일. 홍민·차문석·정은이·김혁, 『북한 전국 시장 정보 : 공식시장 현황을 중심으로』 (서울: 통일연구원, 2016).

70) 천경효·김일한·조성은·최경희·임경훈·조용신, 『북한사회변동 2018 : 시장화, 정보화, 사회분화, 사회보장』,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9, pp. 43~47.

71) 정은이, “북한 도시노동자의 식량조달메커니즘에 관한 연구 : 함경북도 무산지역의 소(燒)토지 경작 사례를 중심으로,” 『동북아경제연구』 제26권 제1호 (2014).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시장(또는 장마당)	113(89.0)	126(95.5)	135(90.6)	130(89.0)	126(91.3)	114(86.4)	79(90.8)
국영상점	1(0.8)	1(0.8)	0(0.0)	0(0.0)	0(0.0)	1(0.8)	0(0.0)
직매점	0(0.0)	0(0.0)	1(0.7)	0(0.0)	0(0.0)	0(0.0)	1(1.1)
백화점 (외화상점)	1(0.8)	0(0.0)	0(0.0)	5(3.4)	2(1.4)	4(3.0)	0(0.0)
외국에서 직접 구입	8(6.3)	5(3.8)	6(4.0)	9(6.2)	9(6.5)	10(7.6)	3(3.4)
국가선물/ 무상배급	0(0.0)	0(0.0)	1(0.7)	0(0.0)	0(0.0)	0(0.0)	0(0.0)
무응답/ 응답오류	4(3.1)	0(0.0)	6(4.0)	2(1.4)	1(0.7)	3(2.3)	4(4.6)
합계	127 (100.0)	132 (100.0)	149 (100.0)	146 (100.0)	138 (100.0)	132 (100.0)	87 (100.0)

\* 조사년도. 조사대상은 조사 직전 연도에 북한에서 나온 북한이탈주민.

※ 출처: 천경호 외, 『북한사회변동 2018 : 시장화, 정보화, 사회분화, 사회보장』 (서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9), p. 46.

주택 역시 시장에서 매매 대상이 되고 있다. 본래 북한사회에서 주택공급은 국가 배정이 원칙으로 북한 주민은 국가 소유 주택의 이용허가증(이하 입사증)을 받아야만 주택에 입주할 수 있으며, 사용 기한의 제한은 없지만 매매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그런데 경제난 이후 장사 밀천 확보, 장사 실패, 식량 확보 등 다양한 목적을 가진 주민이 각급 인민위원회의 ‘도시경영과’나 연합기업소의 ‘주택과’처럼 입사증 발급 권한을 가진 부서의 간부들, 전문 부동산 중개인 등을 통해 ‘비합법적인 주택사용권 매매’(주택매매)를 하고 있는 것이다.<sup>72)</sup> 또한 시장에서 부를 축적한 ‘돈주’가 빈집을 하나의 상품으로 거래하거나, 국가기관을 끼고 아파트 건설과 매매에도 깊이 관여하고 있다고 한다.<sup>73)</sup> 북한에 살 때 살림집을 개인적으로 구매했다는 북한이탈주민 비율이 50~60%대에 이를 정도로([표 9]), 시장은 이제 북한사회의 주된 주택 공급자가 되고 있다.<sup>74)</sup>

[표 9] 북한 주민의 살림집 장만 경로 (단위: 명, %)

72) 정은이, “북한 부동산시장의 발전에 관한 분석 : 주택사용권의 비합법적 매매 사례를 중심으로.” 『동북아경제연구』 제27권 제1호 (2015). 이종태, 『햇볕 장마당 법치』 (서울: 개마고원, 2017), pp. 126~131.

73) 임을출, “북한 사금융의 형성과 발전 : 양태, 함의 및 과제”, 『통일문제연구』 제27권 1호 (2015), pp. 379~380.

74) 김진환, “북한사회와 자본주의 세계의 공존 : 이론과 가능성”, 『북한학연구』 제14권 제1호 (2018), pp. 20~23.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국가에서 배정받음	36(28.6)	19(14.4)	34(23.6)	29(20.0)	28(20.3)	24(18.3)	19(21.8)
내가 돈 주고 샀음	58(46.0)	88(66.7)	77(53.5)	80(55.2)	68(49.3)	77(58.8)	33(37.9)
내가 직접 지었음	13(10.3)	9(6.8)	10(6.9)	7(4.8)	21(15.2)	8(6.1)	14(16.1)
조상/부모로부터 물려받음	17(13.5)	13(9.8)	20(13.9)	25(17.2)	19(13.8)	19(14.5)	15(17.2)
친척/주변사람한테 받음	2(1.6)	3(2.3)	3(2.1)	4(2.8)	2(1.4)	3(2.3)	3(3.4)
무응답/응답오류	1(0.8)	0(0.0)	5(3.3)	1(0.7)	0(0.0)	1(0.8)	3(3.4)
합계	127 (100.0)	132 (100.0)	149 (100.0)	146 (100.0)	138 (100.0)	132 (100.0)	87 (100.0)

\* 조사년도. 조사대상은 조사 직전 연도에 북한에서 나온 북한이탈주민.

※ 출처: 천경호 외, 『북한사회변동 2018 : 시장화, 정보화, 사회분화, 사회보장』 (서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9), p. 51.

이상 살펴본 것처럼 인민이 의식주의 많은 부분을 ‘돈주’가 장악한 시장에서 스스로 해결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당국이 자신의 존재감과 필요성을 인민에게 각인시키고 통치를 안정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효과적이고 시급한 방법은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 성공해 대북제재를 풀고 국가가 장악한 경제 부문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다. 그런데 이 방법은 미국이라는 협상 상대가 있다 보니 당연히 북한 당국의 의지만으로는 쉽게 현실화시키기 어려운 방법이다. 이에 비해 새로운 지배이데올로기의 개발과 주입을 통해 인민의 정치사상적 지지를 붙들어두는 것은 북한 당국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어느 정도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는 방법이다.<sup>75)</sup>

김정은이 2012년 집권한 뒤 공개 연설·담화 등을 통해 인민에 대한 신뢰, 경의, 애정 등을 자주 드러내는 건 바로 이러한 배경 아래 이루어지는 지배이데올로기 행보다. 먼저 김정은은 2012년 4월 6일 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의 담화(이하 4.6담화)에서 김정일에 대해 “인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았던 “인민의 자애로운 아버지”였다고 평가하며, 앞으로 당조직은 김정일의 뜻을 받들어 “인민을 하늘같이 여기고 무한히 존대하고 내세워주며 인민의 요구와 리익을 첫 자리에 놓고 모든 사업을 진행”하자고 촉구했다.<sup>76)</sup> 특히 그는 “수령님식, 장군님식인민관”이라는 표현을 처음 사용했는데, 이는 몇 달 뒤 역시 김정은의 담화를 통해 ‘김정일애국주의’로 정식화된다.

75) 김진환, “3종 ‘제일주의’로 무대 다지려는 김정은,” 『통일시대』 2019년 12월호.

76) 김정은,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높이 모시고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가자(2012. 4. 6)』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3), p. 8, p. 13.

“일군들은 누구나 수령님식, 장군님식인민관을 따라배워 인민들과 한가마밥을 먹으면서 그들과 생사고락을 같이하여야 하며 인민을 위하여 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어야 합니다. (...) 일군들은 인민을 위한 일밖에 모르고 인민을 위한 일을 성실하고 능숙하게 하며 인민을 위한 일에서 기쁨과 보람을 찾는 인민의 참된 복무자가 되어야 합니다(강조는 필자).”<sup>77)</sup>

‘김정일애국주의’라는 단어는 2012년 5월부터 북한사회 관영매체에 등장하기 시작했다. 김정은은 그해 7월 26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의 담화에서 김정일애국주의를 종합적으로 정식화·체계화하고, 김정일애국주의 교양사업 강화를 위한 원칙, 방도 등을 제시했다.<sup>78)</sup> 김정은은 이 담화에서 “이미 여러 기회에 김정일애국주의에 대하여 강조”했는데도 “우리 일군들이 아직 김정일애국주의에 대하여 깊이있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책한 뒤 김정일애국주의를 “우리의 사회주의조국과 우리 인민에 대한 가장 뜨겁고 열렬한 사랑이며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가장 적극적이고 희생적인 헌신”으로 정의했다.

또한 김정일애국주의의 기초는 “조국은 단순히 태를 묻고 나서자란 고향산천이 아니라 인민들의 참된 삶이 있고 후손만대의 행복이 영원히 담보되는 곳이며 그것은 수령에 의하여 마련”된다는 “숭고한 조국관”, 김정일애국주의의 바탕은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는 숭고한 인민관”이며, 김정일애국주의가 더욱 절실하게 다가오는 이유는 “무슨 일을 하나 하여도 자기 대에는 비록 덕을 보지 못하더라도 먼 훗날에 가서 후대들이 그 덕을 볼수 있게 가장 훌륭하게, 완전무결하게 하여야 한다”는 “숭고한 후대관” 때문이라고 주장했다.<sup>79)</sup>

김정은은 이처럼 집권 첫 해에 김정일애국주의를 정식화·체계화함으로써 김일성주의와 구별되는 ‘김정일주의’ 정식화·체계화의 길을 연 뒤,<sup>80)</sup> 2013년 들어서는 김일성-김정일주의의 본질을 ‘인민대중제일주의’로 새롭게 규정했다. 인민대중제일주의라는 단어는 2013년 1월 29일 조선노동당 제4차 세포비서대회에서 처음 등장했다. 김정은은 이날 연설에서 “당원들을 참다운 김일성-김정일주의자로 준비시키는데서 그들에게 인민에 대한 사랑과 헌신적복무정신을 깊이 심어주는데 특별한 주목을 돌려야” 한다면서, “김일성-김정일주의는 본질에 있어서 인민대중제일주의이며 인민을 하늘처럼 숭배하고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는 사람이 바로 참다운 김일성-김정일주의자”라고 주장했다.<sup>81)</sup>

77) 김정은, 위의 책, pp. 26~27.

78) 김정은, 『김정일애국주의를 구현하여 부강조국건설을 다그치자(2012. 7. 26)』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3).

79) 김진환, “김정은 시대 지배이데올로기의 특징과 전망 : ‘김일성주의’에서 ‘김일성-김정일주의’로.” p. 58. 김강민, 『절세의 애국자의 고귀한 정신적유산-김정일애국주의』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16), pp. 71~121.

80) 김진환, “김정은 시대 지배이데올로기의 특징과 전망 : ‘김일성주의’에서 ‘김일성-김정일주의’로.” pp. 53~61.

81) “北 김정은, “당세포만 강하면 못해낼 일 없다.” 『통일뉴스』, 2013년 1월 31일.

그로부터 2년 9개월 정도 지난 2015년 10월 10일 조선노동당 창건 70돌 경축 열병식 및 평양시군중시위는 김정은 지배이데올로기 행보의 중요한 분기점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앞에서 본 김정은의 4.6담화나 제4차 세포비서대회 연설은 듣는 이가 ‘당원’이었고, 주된 내용은 당원이 김일성·김정일을 따라 인민을 위해 복무하자는 것이었다. 이에 비해 이날 김정은의 연설(이하 10.10연설)은 듣는 이가 “전체 인민들”이었고, 주된 내용도 김정은이 직접 “전체 인민들”에게 감사와 경의를 표시하고 헌신을 다짐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먼저, 김정은은 흡사 의회 민주주의 사회의 선거 유세처럼 들리는 인사말로 연설을 시작했다.

“인민의 불같은 총정이 굽이치는 승리의 광장, 경축의 광장에 서고보니 우리 인민을 떠난 오늘의 이 자리를 어떻게 생각이나 할수 있으랴 하는 인민에 대한 고마움에 지금 이 시각 경건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우리 인민들의 정겨운 눈빛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 혁명의 준엄한 년대들마다 우리 당에 무한한 힘과 용기를 주었고 강인한 의지로 력사의 험한 풍파속을 뚫고오며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언제나 당과 운명을 함께 해준 사랑하는 전체 인민들에게 당창건 일흔돐을 맞으며 조선로동당을 대표하여 깊이 허리숙여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삼가 드립니다.”<sup>82)</sup>

이어서 김정은은 인민대중제일주의를 또 다시 언급하며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것”, “인민에게 멸사복무하는 것”을 조선노동당의 “존재방식”으로까지 규정했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는 본질에 있어서 인민대중제일주의이며 우리 당의 존재방식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것입니다. 우리 당은 력사상 처음으로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정치를 펼치시고 한평생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고귀한 뜻을 받들어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인민대중제일주의의 성스러운 력사를 수놓아갈것입니다. 우리 당은 당건설과 당활동을 오직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이 가르쳐주신대로 해나갈것이며 당사업전반에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하여 전당이 인민에게 멸사복무하는것으로써 당의 전투력을 백배해나갈것입니다(강조는 필자).”<sup>83)</sup>**

특히 이날 김정은은 앞으로 조선노동당이 “인민중시, 군대중시, 청년중시의 3대전략”을 “제일가는 무기로 틀어쥐고 나가겠다<sup>84)</sup> ‘군대중시’를 ‘인민중시’ 다음으로 호명했는데, 이를 그가 집권 초에 했던 연설과 비교하면 변화가 엿보인

82) 김정은, 『인민대중에 대한 멸사복무는 조선로동당의 존재방식이며 불패의 힘의 원천이다(2015. 10. 10)』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5), pp. 2~3.

83) 위의 책, pp. 11~12.

84) 위의 책, p. 11.

다. 김정은은 2012년 4월 15일 김일성 탄생 100돌 경축 열병식 서두에서 선군시대 군대의 업적을 칭송한 뒤 두 가지 과제를 순서대로 제시했는데, 이때는 “인민군대 강화”가 “인민생활향상”에 앞서 나왔기 때문이다.<sup>85)</sup> 요컨대, 10.10연설 내용만 놓고 보면, 모든 국사 중에 군사(軍事)를 앞세우라는 선군사상의 요구와 괴리가 확인된다. 이러한 괴리 또는 국정 of 최우선순위 변화 가능성을 김정은은 어떻게 설명할까? 이와 관련해 10.10연설의 다음과 같은 발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 당에 있어서 인민들의 정치적생명과 물질문화생활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돌보아주는것은 한시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제일중대사로, 본분으로 되어왔습니다. (...) 우리 당은 언제나 인민의 안녕과 생명재산을 믿음직하게 지켜낼수 있는 불패의 군력을 마련하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어왔습니다. 우리 당의 독창적인 자위로선과 선군정치에 의하여 인민군대는 그 어떤 침략세력도 단매에 때려부실수 있는 최정예혁명강군으로 자라나게 되었으며 전인민적, 전국가적방위체계가 부단히 강화되어 지금 우리 국가는 금성철벽의 요새로, 세계적인 군사강국으로 전변되었습니다. (...) 우리 당은 오늘 우리의 혁명적무장력이 미제가 원하는 그 어떤 형태의 전쟁에도 다 상대해줄수 있으며 조국의 푸른 하늘과 인민의 안녕을 억척같이 사수할 만단의 준비가 되어있다는것을 당당히 선언할수 있습니다.”<sup>86)</sup>

이러한 발언을 보면, 김정은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선군정치 결과 “금성철벽의 요새, 세계적인 군사강국으로 전변”됐기 때문에 이제 국정의 최우선순위를 바꿀 수도 있다는 생각을 드러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몇 달 지나지 않아 공개 발언 상으로는 국정의 최우선순위가 분명히 바뀌게 된다. 김정은이 2016년 신년사에서 “우리 당은 인민생활문제를 천만가지 국사가운데서 제일국사로 내세우고있습니다”라고 천명한 것이다.

또한 김정일은 10.10연설에서 “조선혁명은 하늘이 주는 신비한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일편단심 당을 따르고 옹위하는 **영웅적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을 비롯한 우리 인민의 위대한 힘에** 떠받들려 전진합니다(강조는 필자)”<sup>87)</sup>라며 ‘혁명의 주력군’ 지위를 군대에 내주고 있던 노동계급을 의식적으로 호명했다. 김정은은 이미 4.6담화에서 “우리의 미더운 로동계급과 농업근로자들”이라는 표현으로 노동계급을 칭찬한 적이 있는데,<sup>88)</sup> 10.10연설을 통해 “미더운 로동계급”을 “영웅적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으로 한 단계 더 부각시킨 것이다.

물론 김정은은 김일성-김정일주의에 대한 새로운 해석, 곧 ‘인민대중제일주의’

85) 김정은, 『선군의 기치를 더 높이 추켜들고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자(2012. 4. 15)』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3).

86) 김정은, 『인민대중에 대한 멸사복무는 조선로동당의 존재방식이며 불패의 힘의 원천이다(2015. 10. 10)』, pp. 6~9.

87) 위의 책, p. 13.

88) 김정은,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높이 모시고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가자(2012. 4. 6)』, p. 25.

를 직접 정식화해나가면서도 “인민군대는 혁명의 주력군”이라며 ‘선군후로의 사상’은 손대지 않고 있다.<sup>89)</sup>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위기 속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던 노동계급에 대한 신뢰와 기대를 단계적으로 높여 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10.10연설 1년여 뒤 조선직업총동맹 제7차 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에도 김정은의 이러한 노동계급관이 잘 담겨 있는데, 특히 노동계급이 군인들과 “어깨 결고” 나가고 있다는 평가나, “로동계급이 마땅히 주도적이며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합니다”라는 주문 등을 보면, ‘군대=혁명의 주력군’이라는 공식의 변화 가능성까지도 배제할 수 없다.

“지금 조국땅 이르는 곳마다에서 이룩되고있는 세상을 놀래우는 경이적인 사변들과 전화위복의 기적들에는 인민군군인들과 어깨결고 당의 경도를 한마음한 뜻으로 받들어나가는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의 애국충정의 피와 땀이 뜨겁게 승배여 있습니다. (...) 오늘의 전인민적총진군에서 혁명성과 조직성이 강하고 무궁무진한 창조력을 지닌 로동계급이 마땅히 주도적이며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상과 경도를 충직하게 받들어온 조선로동계급에게 영웅적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이라는 고귀한 칭호를 주었습니다. (...) 영웅적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은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의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총진군대오를 앞장에서 이끄는 기관차가 되고 사회의 본보기가 되어 사회주의강국건설을 힘있게 추동해나가야 합니다(강조는 필자).”<sup>90)</sup>

지금까지 살펴본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김정은의 지배이데올로기 행보는 주로 김일성-김정일주의 심화발전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이에 비해, 2016년 이후 김정은의 지배이데올로기 행보는 김일성-김정일주의 심화발전에 머무는 게 아니라, 자신의 독창적 혁명사상을 적극적으로 내놓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먼저, 김정은은 2015년 신년사에서 “모든 공장, 기업소들이 수입병을 없애고 원료, 자재, 설비의 국산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자고 호소했고, 2016년 신년사에서 이러한 태도를 ‘자강력제일주의’로 이름 붙였다.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서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들고나가야 합니다. 사대와 외세의존은 망국의 길이며 자강의 길만이 우리 조국, 우리 민족의 존엄을 살리고 혁명과 건설의 활로를 열어나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자기의것에 대한 믿음과 애착, 자기의것에 대한 금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강성국가건설대업과 인민의 아름다운 꿈과 리상을 반드시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원으로 이룩하여야 합니다.”<sup>91)</sup>

89) 위의 책, p. 16.

90) 김정은,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의 시대적 임무와 직맹조직들의 과업(2016. 10. 25)』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6), pp. 2~4.

91) 『로동신문』, 2016년 1월 1일.



김정은은 몇 달 뒤인 2016년 5월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에서 ‘자강력제일주의’를 “자체의 힘과 기술, 자원에 의거하여 주체적력량을 강화하고 자기의 앞길을 개척해나가는 혁명정신”으로 정식화했는데,<sup>92)</sup> 그에 따르면 자강력제일주의는 선대 수령들의 혁명사상 자체가 아니라 그에 “기반”한 것이다.

“자강력제일주의의 기반은 자기 나라 혁명은 자체의 힘으로 해야 한다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혁명사상이며 자강력제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투쟁방식은 자력갱생, 간고분투입니다.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며 오직 자체의 힘으로 자기 운명을 개척하여야 한다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자력자강의 정신이 우리 인민을 불가능을 모르는 정신력의 최강자로 키우고 우리 조국을 그 누구도 무시할수 없는 불패의 강국으로 전변시켰습니다.”<sup>93)</sup>

나아가 김정은은 자강력제일주의를 조선노동당이 견지해야 할 “항구적인 전략적로선”의 한 부분으로까지 규정했는데, 이로써 자강력제일주의는 김일성·김정일 시대에 정립한 “사회주의건설의 총로선”과 같은 위상을 갖게 됐다.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의 기치밑에 사회주의강국을 성과적으로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높이면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릴데 대한 우리 당의 총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합니다. (...) 우리는 **사회주의건설의 총로선과 자강력제일주의를 항구적인 전략적로선으로 틀어쥐고**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며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는 역사적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여야 하겠습니다(강조는 필자).”<sup>94)</sup>

이후 자강력제일주의는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목표인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위한 기본 과제로도 규정됐다.

첫째, 북한 사회과학원 서성일 박사에 따르면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밝힌 이는 김정은이다. 2018년 6월 발행된 『철학, 사회정치학연구』에 실린 서성일의 글 제목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밝히신 우리 국가제일주의에 관한 사상”이다. 이 글에는 김정은이 “앞으로 우리 민족제일주의,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들고나가야 합니다”라고 말했다고 적혀 있는데,<sup>95)</sup> 이 단어가 처음 등장한 건 2017년 11월 20일 『로동신문』 정론이므로<sup>96)</sup> 김정은의 발언 시기는 그 이전이

92) 김정은,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2016. 5. 6~7)』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6), p. 36.

93) 위의 책, p. 37.

94) 위의 책, pp. 35~37.

95) 서성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밝히신 우리 국가제일주의에 관한 사상,” 『철학, 사회정치학연구』, 2018년 제2호 (2018), p. 10.

있을 것이다. 어쨌든 김정일이 1.29담화에서 총대철학의 창시자로 김일성을 적시했듯이, 서성일은 이 글에서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창시자로 김정은을 적시한 셈이다.

둘째, 우리 국가제일주의는 “주체조선의 강대성과 우월성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이며 우리 식 사회주의조국의 존엄과 위상을 더 높이 떨쳐나가려는 각오와 의지”로 정식화됐다. 이러한 정의는 『민주조선』 2017년 12월 10일에 등장한 뒤 모든 관영매체에서 자구 하나 다르지 않게 반복되고 있다. 먼저 ‘우리 국가’에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로는 ①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을 주체조선의 영원한 수령으로, 김정은을 국가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셨다는 점 ②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국가의 지도사상으로 했다는 점, ③ 인민대중 중심의 가장 우월한 국가사회제도에 살고 있다는 점, ④ 국력이 무진막강하다는 점 등이 제시됐다. 군대와 인민들이 이러한 긍지와 자부심을 토대로 “사회주의강국건설”에 매진할 “각오와 의지”를 다지도록 하겠다는 게 바로 북한사회 지배집단이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내놓은 의도다.<sup>97)</sup>

셋째,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사상정신적원천”은 김정일애국주의다. “김정일애국주의를 소중히 간직한 사람만이 존엄높은 우리 공화국이 이 세상에서 제일 강대하고 가장 우월하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간직하고 그 위력을 떨치기 위한 투쟁에서 불굴의 정신력과 애국적헌신성을 높이 발휘해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sup>98)</sup>

넷째,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기본요구”, 곧 사회주의 강국 건설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 과제는 크게 ① 김일성·김정일의 부강조국건설 사상과 불멸의 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빛내여 나가는 것, ② 김정은이 있기에 사회주의 강국 건설은 확정적이라는 절대불변의 신념을 가지고 김정은의 사상과 영도를 충정으로 받들어나가는 것, ③ 국가건설과 활동에서 자주의 기치, 자강력제일주의의 기치를 높이 들고 국가의 우월성과 위력을 더욱 강화하고 온 세상에 힘 있게 과시하는 것, ④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하는 것 등이다.<sup>99)</sup>

정리하면, 김정은이 밝혔다는 ‘우리 국가제일주의’는 김정은이 2012년에 정식화한 ‘김정일애국주의’를 사상정신적 원천으로 삼아, 역시 김정은이 2016년에 주창한 ‘자강력제일주의’, 김정은이 2013년에 김일성-김정일주의의 본질로 규정한 ‘인

96) “(…) 이 땅에 주렁지는 창조와 행복의 모든 열매들은 다 우리 민족제일주의,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눈부신 실천으로 구현해오신 그이의 위대한 손길에서 마련된것들이다.” 『로동신문』, 2017년 11월 20일 2면.

97) 황창만,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본질,” 『민주조선』, 2017년 12월 10일 2면. 서성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밝히신 우리 국가제일주의에 관한 사상,” pp. 10~11. 원길성,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본질,” 『조선녀성』, 2018년 제6호 (2018), p. 28.

98) 김원,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사상정신적 원천,” 『민주조선』, 2017년 12월 16일 2면. 리현석, “김정일애국주의는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사상정신적 원천,” 『철학, 사회정치학연구』, 2018년 제3호 (2018), pp. 14~15.

99) 김원,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기본요구,” 『민주조선』, 2017년 12월 27일 2면. 장동국,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높이 들고나가는데서 나서는 중요요구,” 『철학, 사회정치학연구』, 2018년 제3호 (2018), pp. 19~21. 최영일,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기본요구,” 『조선녀성』, 2018년 제7호 (2018), p. 33.

민대중제일주의’ 등을 구현함으로써 ‘사회주의 강국 건설’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추구하고 있는 지배이데올로기다([표 10]). 북한사회의 피지배집단은 이제 김일성-김정일주의 뿐 아니라 김정은이 2019년 신년사에서 공개적으로 말했듯이 “정세와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신념으로 간직”<sup>100)</sup>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sup>101)</sup>

[표 10] 김정은의 지배이데올로기 행보

시기	내용	의의
2012년	‘김정일애국주의’ 정식화·체계화	김일성-김정일주의 심화발전
2013년	김일성-김정일주의의 본질을 ‘인민대중제일주의’로 규정	김일성-김정일주의 심화발전
2016년	‘자강력제일주의’ 주창	김정은의 혁명사상 제시
2017년 11월 이전	‘우리 국가제일주의’ 주창	김정은의 혁명사상 제시

## V. 맺음말

북한 당국은 1945년 해방 이래 2019년 현재까지 북한사회 안팎 변화에 대응하는 지배이데올로기를 개발하고, 이를 북한 인민에게 침투시키는 방식으로 통치안정화를 도모해 왔다. 예를 들어 북한 당국은 해방 이후 북한사회 안에 존재하던 자본주의적 요소를 없애고 농업·상공업을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 과정에서 ‘집단주의’를 정식화하고 이를 인민에게 내면화시키기 위해 주력했다. 또한 북한 당국은 전후 복구, 1950년대~1960년대 소련·중국과의 갈등 등을 거치면서 ‘주체사상’을 정립했고, 1960년대 중반 경제침체에는 집단주의·주체사상 교양 강화로 대응했다.

지배이데올로기의 개발과 전파를 통해 통치안정화를 도모하는 북한 당국의 모습은 1990년대 체제위기 발생 이후에도 변함이 없지만, 북한 당국이 인민에게 내면화시키려는 지배이데올로기의 내용은 좀 더 다양해지고 있다. 체제위기 발생 이전에는 집단주의와 주체사상이라는 전통적 지배이데올로기로 충분했지만, 심각한 경제난과 대외관계 악화로 전통적 지배이데올로기의 영향력이 약해지면서 인민의 정치사상적 동요를 진정시킬 새로운 지배이데올로기가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먼저 김정일 통치 시기 북한 당국은 체제위기 극복을 위해 실행한 선군정치 정당성과 효과성을 인민에게 각인시키기 위해 ‘선군사상’을 정식화·체계화해나갔다. 강력한 군사력이 있으면 주체적인 사회주의 혁명을 지속할 수 있다는 자신감

100) 『로동신문』, 2019년 1월 1일.

101) 김진환, “선군시대 북한사회의 지배이데올로기 변화,” 이상숙 엮음, 『북한의 선군정치, 김정은의 선택은?』 (서울: 선인, 2019), pp. 47~71.

을 인민에게 내면화시키고, 군인들이 체제위기 속에서 보여줬던 집단주의적 모범을 전과함으로써 북한사회 내 개인주의 성장을 제어해보겠다는 게 바로 북한 당국이 선군사상을 정식화·체계화한 의도다.

다음으로 김정은 통치 시기 북한 당국은 ‘김정일애국주의’ 정식화를 통해 김정일의 이미지를 “인민의 자애로운 아버지”로 각인시키고, 김일성·김정일 통치 시기 정립된 지배이데올로기, 곧 ‘김일성-김정일주의’의 본질을 아예 ‘인민대중제일주의’로 규정했다. 또한 김정은은 “인민에게 멸사복무하는 것”이 조선노동당의 존재방식이라고까지 선언했고, 북한 당국은 인민대중 중심의 우월한 국가사회제도에 살고 있으므로 ‘우리 국가’에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인민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이처럼 북한 당국이 김정은 통치 시기 들어 인민에 대한 신뢰, 경의, 애정을 부족 자주 드러내는 이유는 바로 ‘시장화 진전’이라는 거스를 수 없는 북한사회 변화에 이데올로기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곧, 최근 북한 당국 지배이데올로기 행보의 배경에는 인민이 의식주의 많은 부분을 시장에서 스스로 해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민의 정치사상적 지지를 받으려면 고압적이거나 계몽적인 태도보다는 일종의 ‘자세 낮추기’가 효과적이라는 판단이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주목할 점은 북한 당국이 2018년 이후 트럼프 행정부와 진행 중인 비핵화 협상이 성과를 거둘수록 선군사상의 이데올로기적 효용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다. 선군사상은 미국과 ‘대결’하는 상황에서 지배이데올로기로서의 기능을 더 잘 발휘할 수 있는데, 핵·미사일을 내려놓고 미국과 ‘화해’하는 마당에 군사중시, 군대우선 같은 구호는 호소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그림 3] 한국은행 추정 남북 경제성장률 추이 (단위: %)



박영석 기자 / 20190726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또한, 한국은행이 2019년 여름 발표한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치를 두고 판단해보면, 북한 경제가 김정일 통치 시기, 그러니까 플러스 성장세를 지속하던 2000

년대에 비해 2017년, 2018년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정도로 악화되는 상황에서([그림 3]) ‘선군’을 외치는 건 인민의 정치사상적 지지 확보에도 좋지 않은 지배이데올로기 행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북한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세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북한 당국이 경제 성장을 위해서 트럼프 행정부와 비핵화 협상을 지속한다면, 우리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북한 당국이 더 자주, 더 큰 목소리로 인민에 대한 신뢰, 경의, 애정을 밝히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강덕서. 『새 인간 형성과 천리마작업반운동』.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1.
- 김강민. 『절세의 애국자의 고귀한 정신적유산-김정일애국주의』.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16.
- 김일성. “당원들속에서 계급교양사업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1955. 4. 1).” 『김일성 저작집 9』.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 김일성.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데 대하여(1955. 12. 28).” 『김일성 저작집 9』.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 김일성.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 수행에서 남포시 당조직들 앞에 나서는 과업에 대하여.” 『김일성 저작집 28』.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4.
- 김일성. “우리 당의 주체사상과 공화국정부의 대내외정책의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1972. 9. 17).” 『김일성 저작집 27』.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4.
- 김일성. “일군들속에서 혁명성,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높일데 대하여(1984. 3. 13).” 『김일성 저작집 38』.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 김일성.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치자(1987. 1. 3).” 『사회주의 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7』.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 김일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사회주의건설과 남조선혁명에 대하여(1965. 4. 14).” 『김일성 저작집 19』.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5.
- 김일성. “조선혁명의 진로(1930. 6. 30).” 『김일성 저작집 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 김일성. 『세기와 더불어 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 김정은.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의 시대적 임무와 직맹조직들의 과업(2016. 10. 25)』.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6.
- 김정은. 『김정일애국주의를 구현하여 부강조국건설을 다그치자(2012. 7. 26)』.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3.
- 김정은. 『선군의 기치를 더 높이 추켜들고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자(2012. 4. 15)』.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3.
- 김정은.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높이 모시고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가자(2012. 4. 6)』.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3.
- 김정은. 『인민대중에 대한 멸사복무는 조선로동당의 존재방식이며 불패의 힘의 원천이다(2015. 10. 10)』.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5.
- 김정은.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2016. 5. 6~7)』.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6.
- 김정일. “경공업을 발전시키며 경제관리연구사업을 잘할데 대하여(1992. 4. 4).” 『김정일 선집 1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김정일. “경공업혁명을 철저히 수행할데 대하여(1990. 6. 2).” 『김정일 선집 10』.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김정일. “당사업을 더욱 강화하며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치자(1991. 1. 5).” 『김정일 선집 1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김정일. “당의 무역제일주의방침을 관철하는데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1995. 2. 1).” 『김정일 선집 1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김정일. “로동행정사업을 더욱 개선강화할데 대하여(1989. 11. 27).” 『김정일 선집 9』.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김정일. “사설혁명을 일으킬데 대하여(1974. 2. 22).” 『김정일 선집 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4.

김정일. “사회주의건설의 역사적교훈과 우리 당의 총로선(1992. 1. 3).” 『김정일 선집 1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김정일. “선군혁명로선은 우리 시대의 위대한 혁명로선이며 우리 혁명의 백전백승의 기치이다(2003. 1. 29).” 『김정일 선집 15』.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5.

김정일.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하기 위한 당사상사업의 당면한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1974. 2. 19).” 『김정일 선집 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4.

김정일. “우리 당 출판보도물은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에 이바지하는 위력한 사상적무기이다(1974 5. 7).” 『김정일 선집 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4.

김정일. “우리 인민정권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자(1992. 12. 21).” 『김정일 선집 1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김정일. “인민생활을 더욱 높일데 대하여(1984. 2. 16).” 『김정일 선집 8』.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김정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1996. 12. 7).” 『월간조선』, 1997년 4월호, 1997.

김진환. “3중 ‘제일주의’로 무대 다지려는 김정은.” 『통일시대』, 2019년 12월호, 2019.

김진환. “김정은 시대 지배이데올로기의 특징과 전망 : ‘김일성주의’에서 ‘김일성-김정일주의’로.” 『북한연구학회보』, 제17권 제2호, 2013.

김진환. “북한 지배이데올로기의 형성과 내면화.” 강정구 외. 『시련과 발돋움의 남북현대사』. 서울: 선인, 2009.

김진환. “북한사회와 자본주의 세계의 공존 : 이론과 가능성.” 『북한학연구』, 제14권 제1호, 2018.

김진환. “선군시대 북한사회의 지배이데올로기 변화.” 현대북한연구회 엮음, 『선군정치』. 서울: 선인, 2019.

김진환. “조선노동당의 집단주의 생활문화 정착 시도.” 『북한연구학회보』, 제14권 제2호, 2010.

- 김진환. “조선로동당의 선군정치 서술.” 정영철 외. 『조선로동당의 역사학: 조선로동당사 비교연구』. 서울: 선인, 2008.
- 김진환. “천리마운동 : 건설의 신화와 재현의 정치.” 『북한연구학회보』, 제20권 제2호, 2016.
- 김진환. 『‘북한사회’라는 배의 항해 이야기』. 대전: 국방정신전력원, 2019.
- 김진환. 『북한위기론: 신화와 냉소를 넘어』. 서울: 선인, 2010.
- 당력사연구소. 『김정일동지략전』.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9.
- 당력사연구소. 『조선로동당력사』.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1.
- 당력사연구소. 『조선로동당력사』.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4.
- 당력사연구소. 『조선로동당력사』.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6.
- 리현석. “김정일애국주의는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사상정신적 원천.” 『철학, 사회정치학연구』, 2018년 제3호. 2018.
- 비판사회학회 엮음. 『사회학』. 서울: 한울아카데미, 2012.
- 서동만. 『북조선 사회주의체제 성립사 1945~1961』. 서울: 선인, 2005.
- 서성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밝히신 우리 국가제일주의에 관한 사상.” 『철학, 사회정치학연구』, 2018년 제2호, 2018.
- 양문수. 『북한경제의 구조 : 경제개발과 침체의 메커니즘』.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1.
- 외국문출판사. 『위인 김정일』. 평양: 외국문출판사, 2012.
- 원길성.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본질.” 『조선여성』, 2018년 제6호, 2018.
- 이금순. 『북한주민의 국경이동 실태 : 변화와 전망』. 서울: 통일연구원, 2000.
- 이종태. 『햇별 장마당 법치』. 서울: 개마고원, 2017.
- 이태섭. 『김일성리더십 연구』. 서울: 들녘, 2001.
- 임을출. “북한 사금용의 형성과 발전 : 양태, 함의 및 과제.” 『통일문제연구』, 제27권 1호, 2015.
- 장동국.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높이 들고나가는데서 나서는 중요요구.” 『철학, 사회정치학연구』, 2018년 제3호, 2018.
- 장영식. 『북한의 에너지 경제』.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1994.
- 정우진. 『북한의 에너지 산업』. 서울: 공보처, 1996.
- 정은미. 『북한의 국가중심적 집단농업과 농민 사경제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 정은이. “북한 도시노동자의 식량조달메커니즘에 관한 연구 : 함경북도 무산지역의 소(燒)토지 경작사례를 중심으로.” 『동북아경제연구』, 제26권 제1호, 2014.
- 정은이. “북한 부동산시장의 발전에 관한 분석 : 주택사용권의 비합법적 매매 사례를 중심으로.” 『동북아경제연구』, 제27권 제1호, 2015.
- 조선로동당출판사.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 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계획위원회 중앙통계국 편. 『1946~196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 경제 발전 통계집』. 평양: 국립출판사, 1961.

주체경제학연구소. 『경제사전 1』.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직업동맹출판사. 『천리마기수독본』. 평양: 직업동맹출판사, 1961.

진희관. “북한에서 ‘선군’의 등장과 선군사상이 갖는 함의.” 『국제정치논총』, 제48집 제1호, 2008.

천경효·김일한·조성은·최경희·임경훈·조용신. 『북한사회변동 2018 : 시장화, 정보화, 사회분화, 사회보장』. 서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9.

최영일.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기본요구.” 『조선여성』, 2018년 제7호, 2018.

한국개발연구원. 『북한경제지표집』.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1996.

홍민·차문석·정은이·김혁. 『북한 전국 시장 정보 : 공식시장 현황을 중심으로』. 서울: 통일연구원, 2016.

『로동신문』, 『민주조선』, 『연합뉴스(온라인)』, 『중앙일보』, 『통일뉴스(온라인)』